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F AN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KOREAN CHURCHE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Won Jea Keum

May 2017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Won Jea Keu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soon Kang, Chairperson

K. Samuel Lee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7

ABSTRACT

A Critical Study of Korean Churches' Understanding of the Cross

Won Jea Keum

This project examines how Korean churches understand the Cross. Through this project, I found that, due to their traditional and dogmatic theological tendencies, Korean churches have a narrow understanding of the Cross and cannot see its political and resistance-oriented meanings. For this project, I collected sermons on a significant recent event in Korea, the *Sewol* ferry tragedy, and analyzed them according to their themes. I used literary research as my analysis tool. I propose two new perspectives on the Cross that Korean churches do not recognize. One exposes the victim mechanism as elucidated by René Girard, and the other is the sympathy and resistance approach described by Dorothee Soelle. In my conclusion, I describe these meanings in the form of a Bible study. My conclusion is important in that this understanding of the Cross deepens understandings of the Cross within Korean churches and helps th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posing the systems which produce victims and resist them from the standpoints of victims.

KEYWORDS: Cross, Korean Church,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Resistance, Homiletics

SUMMARY

Even though Korean churches have emphasized the Cross, their understanding of it is very narrow. One reason is that their understanding of it lacks cri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underpinnings. As a result, when victims suffer from the victim mechanism in Korea, the sermons of Korean pastors are limited to providing solace for the victims, preaching salvation, and evangelizing through talking about the Cross, forgiveness, and theodicy. However, this approach has a weakness in that it does not resist the social systems that produce victims.

After examining René Girard's work and feminism perspectives using a hermeneutical methodology and the lenses of the four Gospels from a critical biblical perspective, I found multiple layers to the meaning of the Cross.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ross places emphasis on sacrifice, victory, forgiveness, and setting a moral example. However, using contemporary theology, philosophy, and social analysis, I discovered that the Cross exposes a social system which intensifies the production of victims and resists it, a perspective to which traditional interpretation was blind.

Utilizing this new paradigm, I analyzed several sermons preached one to three weeks after the *Sewol* ferry tragedy happened in order to comprehend the understanding of the Cross within Korean churches. In spite of the egocentrism of Korean companies, materialism, the immature response of the Korean government, inexperienced safety management within Korean society, and suspicions about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during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 tragedy, none of the sermons I collected mentioned these issues. The first Sunday after the tragedy was an Easter Sunday. With Easter being the intersection between suffering and resurrection, it was an opportunity to reveal clear understandings of the Cross in Korean churches. However, some of the sermons were silent about the issues of the tragedy, and others ended with the catchphrase, "Let's evangelize." Some of the sermons tried to console audiences through theodicean interpretations or mentioned that we are all the same as sinners in relation to other

social issues, but the sermons lacked caring for the anger of Korean people. I think this is because they had not reflected enough on the meaning of the Cross. From the perspective of exposing the victim mechanism and resisting it, it was revealed that a deep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ross was missing when the sermons were silent about Korean society being generous to major companies, placed more emphasis on benefits than justice, and represented the Korean government's perspective.

I propose an alternative Bible study based on my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Korean churches. In the Bible study, I describe some biblical examples of the victim mechanism and compare the examples in the Bible with contemporary examples. Through this Bible study, I emphasize the social mechanism by which victims continue being produced, thereby causing the re-crucifixion of Jesus, how the mechanism is evil, and how we have to resist this social mechanism.

목 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연구의 의미와 목적 (Meaning and Purpose of Study)

1. 연구의 의미 (Meaning of Study)

나의 신앙적 배경은 늘 복음주의였고, 나의 목회 또한 복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익숙한 세계관과는 다른 다양한 신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 이러한 통찰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목회에 관해 비판적 관점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 현장목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경험했다. 이는 주로 교단적 배경으로 인해,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틀을 벗어난 설교나 발언을 한다는 것에 관한 위험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단으로 몰리거나, "자유주의신학"에 물든 목회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다.[2]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다. 기업주의 탐욕과 기업을 관리하는 국가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정부의 대처능력의 부실과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

[1] 목창균, *Modern Evangelicalism 현대 복음주의* (서울: 황금부엉이, RIDI Edition, 2005), RIDI location 159-60/1029. "복음주의란 불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심과 복음 전도에 우선권을 두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 즉 중생과 회심을 강조한다."

[2] 목창균, 527/1029. 목창균은 자유주의는 "Bad theology"인데 반해, 복음주의 신학은 "no theology"라는 지적에 관해 소개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오순절운동을 통해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으로 심하게 흐른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복음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다고 본다. 그러나 목창균 스스로 자유주의를 "Bad theology"로 비하한다. 나는 이것을 복음주의진영에서 보는 자유주의에 대한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는 일로 인해 많은 국민의 분개를 샀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보다 분노한 회중들, 슬픔에 잠긴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는 점이다. 기독교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 중에 “희생자”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희생자 이미지가 단순히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일까? 정치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러한 사건들 앞에 “모두가 죄인이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러한 희생자를 내는 사건이 있을 때 과연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희생자를 내는 사건에 대해 십자가의 의미와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할 만큼 십자가 신학에 대한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업의 탐욕과 정치적인 권력욕을 위한 속임수에 대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지 개인 윤리와 성도의 위로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그런 주제일까?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관해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십자가이해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면서 십자가 신학에 관한 의미 있는 대답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The Purpose of Study)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가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희생자”가 생겼을 때 이 사건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적절한 분노와 적절한 비판을 하지 못한 채 희생자에 대한 위로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식의 교리적 입장을 표명함으로 일어나는 십자가 신학의 부재에 대해 비판하려고 한다. 한국 교회는 희생자가 약자이고, 가해자가 강자일 때 희생자의 편에서 십자가의 신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그 해 8월 6일 동아일보 1면에 조찬기도회에 관한 기사에 전두환 위원장이 "불순분자들의 배후조정에 의해 불행한 광주사태까지 일어났다"고 언급했으며 그 앞에 정진경 목사(신촌 성결교회)는 "사회 구석 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하며 남북통일, 국가의 번영, 민주화 실현에 크게 공헌해달라"고 말했다.[3] 이처럼 교회가 정부의 입장, 또는 가해자의 이념을 위해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 교회는 독일 나치의 입장을 위해 유대인을 예수의 적으로 몰아세웠고, 흑인 노예제도를 위해 교회는 노아의 둘 째 아들 함을 흑인으로 둔갑시켰다. 가해자인 정부와 피해자인 5·18 광주민주화 희생자를 놓고 볼 때 교회는 가해자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해 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강자의 편에서 일어난 희생에 관해 무관심하든지, 상황과 관련성이 적은 교리적인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이에 반하여 현대 지식인들은 이러한 강자에 의한 희생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는 결국 현대 지식인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를 외치는 공허한 기독교 이미지를 감출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은 강자에 의한 희생에 관해 십자가 신학이 지나치게 교리적 입장만을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약자의 편에서, 또한 희생자의 편에서 의미 있는 대답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곧 희생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를 향한 일종의 저항적 대안을 본 연구의 목적을 삼고자 한다. 또한 결론부에 가서 대안적 십자가 이해를 통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봄

[3] Anonymous, "국가조찬기도회 전두환 위원장 국운개척사명 기필코 완수," *동아일보*, August 6, 198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 (Accessed May 9, 2016).

으로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교리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B. 연구 방법과 범위 (Method and Scope of Study)

1. 연구 방법 (Method of Study)

나는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정치적인 상황과 강단에서 행해진 설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비평들을 수집하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십자가 이해가 자신의 설교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지를 관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광범이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세월호 사건(2014년 4월 16일)이 있고 난 후 전해진 설교들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들을 비판적 분석을 하는 것으로 제한 했다.

십자가 이해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십자가 신학에 관한 문헌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를 인식하고 또한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를 바라 볼 때 나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의 *역사 속의 신학(Christian Theology)*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소개한 네 가지 이해, 즉 희생으로서의 십자가, 승리로서의 십자가, 십자가와 용서, 도덕적 본보기로서 십자가에 대한 서술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해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4] 이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입문적 수준의 안내서"라고 했고, 또한 "독자가 그리스도교 신

---

[4]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그리스도교 신학 개론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trans. 김홍기 et al.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03-49.

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고 했다.[5] 입문서로서 기독교 신학의 틀을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 기본서이며, 내가 이 책을 읽는 중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의 네 가지 이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이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을 기본적인 틀로 삼고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먼저 알리스터의 주장을 수용 또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내가 사용하는 문헌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은 분석철학적 방법론이다. 분석철학적 방법론이란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의 철학방법론으로 그의 *서양철학사(History of Western Philosophy)*에서 사용한 방법론이다. 명확성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형식은 대부분 명확성을 가지고 전달이 된다. 이러한 명확성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은 문제 제기를 한다.[6] 예를 들어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의 *역사 속의 신학(Christian Theology)*역시 신학 개론서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위한 명확성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 물론 그 책 안에는 그의 비판적, 발전적 해석이 첨가되지만 여전히 의문을 던질 내용들이 존재한다. 명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위해 명확성에 드리워진 인식의 사각(epistemological blind spot)을 드러내다 보면 새로운 통찰들이 생긴다. 이것이 분석철학적 방법론이 가진 장점이다.

---

[5] McGrath, 16.

[6] Bertrand Russell,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사*, trans. 서상복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81-85. 러셀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 연역법에 의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역법은 늘 제일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러셀은 이러한 "제일 전제"를 어떻게 얻냐는 것에 의문제기를 한다. 결국 본질이라는 것은 "낱말의 본질을 지니기도 하지만 사물은 본질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러셀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너무 연역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러셀은 그의 학설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결론짓는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한국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 강남순의 여성신학, 박승호 (Andrew Sung Park)의 희생자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이해, 도로테 죌레(Dorothee Soelle), 몰트만(Moltmann) 등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본 십자가 이해는 이러한 명확성에 드리워진 인식의 사각을 더욱 더 잘 드러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르네 지라드(Rene Girard)의 사회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희생의 십자가 이해는 중요하다. 그는 예수의 수난과 오이디푸스 같은 신화와 비교하면서 신화는 희생물을 죄인으로 표현하지만, 예수의 수난은 희생물이 무죄임을 드러낸다는 점을 큰 차이로 이해했다. 신화는 폭력을 감추고 있지만, 예수의 수난은 반대로 그 폭력을 드러낸다. 르네 지라드는 폭로하는 기능을 가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7] 나는 르네 지라드의 통찰들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과 앞에서 말한 신학자들의 통찰들을 가지고 십자가 신학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을 위한 "실험적 사유" (Experimental Thinking) 를 하려고 한다. 나는 이를 통해 나의 십자가 신학을 정립해 볼 것이다.[8]

2.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Limitation and Scope of Study)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은 실험적 사유라는 용어에서 나타난다. 내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현실과 관련 있다. 한국

---

[7] Rene Girard, *Je vois Satan tomber comme leclair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trans. 김진식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7-16, 머리말을 참고함.

[8] 실험적 사유(Experimental Thinking)란 문학영역에서 실험적 글쓰기라는 표현으로 함께 등장하는 말이다. 나는 실험적 사유라는 의미를 "명료성"에 질문을 던지고, 통상적으로 생각해 온 "명료한 것"들이 실제 세계 안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사유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실험적 사유를 통해 "명료성"은 "잠정적"이 되고, 이를 세계 안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관찰함으로 "명료성"에서 보지 못했던 수 많은 감추어진 의미들을 찾아냄으로 실험이 주는 의미있는 결과물들을 얻으려는 사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 익숙한 십자가 이해가 아닌 것에 대해 교리적 해석을 내세워 이단으로 몰아내는 경향에 대한 염려이다. 이에 대해 이미 하비 콕스(Harvey Cox)는 그의 책 *종교의 미래 (The Future of Faith)*에서 교리적 믿음(Belief)과 잠정적 개념으로 계속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faith)과 구분하면서 "신비를 향한 기본 자세로서의 신앙"을 강조한다.[9] 이경식(K. Samuel Lee)은 한국교회안에 신앙고백적(orthodoxy) 교리와 신앙고백에 근거한 실천(orthopraxy)에 있어서 거리를 비판한다.[10] 이러한 거리감은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직결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면 타종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한 고등학교에서 아랍계 학생의 졸업앨범에 ISIS라는 이름으로 인쇄되는 바람에 이슈화가 되었다.[11]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론화 하면서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슬람에 대한 과도한 혐오감을 교회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다.[12]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비 콕스나 이경식의 말대로 교리적인 믿음에서 성숙하는 믿음, 즉 신앙고백에 근거한 실천을 향할 필요가 있다. 혐오감은 기독교적 가치라 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교리적 믿음에 근거한 것 때문에 예수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타종교에 대

[9] Harvey Cox, *the future of faith 종교의 미래* trans. 김창락 (서울: 문예출판사, 2009), 38-60.

[10] K. Samuel Lee, "Christian Responsibility for Interreligious Conflict," *Leadership Is Discipleship*, Board of Disciple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7, (In Korean).

[11] 서유진, "히잡 여고생 졸업앨범 내 이름이 IS라니," *중앙일보,* May 10, 2016. http://news.joins.com/article/20004624 (Accessed May 20, 2016). IS는 Islamic State의 약자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라는 의미로 보통 ISIS로 지칭된다. 졸업앨범에 Bayan Zehlif라는 이름이 ISIS Phillips라고 인쇄된 것으로 이슈화 되었다.

[12] Lee, 2. 이경식에 따르면 2016년 1월 14일 할랄괴담이 있었는데, 할랄식품단지를 조성하면서 5,500억원을 투자했고,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100만명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러다가 한국이 이슬람화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시위를 했다고 한다.

한 온건한 발언을 할 경우 자유주의신학에 물든 자로 이단성을 의심받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미 보수적인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생 시절 신앙체험을 통해 복음주의계열의 선교단체(C.C.C.)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하여 진보적인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다시 보수적인 목회자 아래서 목회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의 자리(Sits im leben)가 있다. 내가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를 비판적 반영(Critical Reflection)을 하는 과정이 하비콕스(Harvey Cox)가 말하는 믿음에서 신앙으로서 옮겨가는 과정이며, 이경식이 말하는 교리에 근거한 실천(orthopraxy)으로 점차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한 과정 속에서 굳이 "실험적 사유"라는 제한성을 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정직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십자가 신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실험적 사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있다. 한국 교회는 경직되어 있다. 한국 교회의 병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발돋움이 쉽지 않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진위의 구분이란 권력이 담론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고 했다.[13]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이에 대한 진위가 교단 안에 있는 권력에 의해 평가 받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목회자뿐 아니라 연구자의 경직성으로 연결된다. 한국 교회 십자가 신학의 변화는 이러한 경직성이라는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14]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한성을 염두 하면서

---

[13]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 담론의 질서*, trans. 이정우 (서울: 중원문화. 1992), 142.

[14] Wikipedia(위키피디아), "감리교신학대학교." https://ko.wikipedia.org/wiki/감리교신학대학교 (Accessed May 9, 2016). 1990년 변선환 교수가 "불타와 그리스도"를 발표했고, 홍정수 교수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조명한다"는 글을 발표하면서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신학이 근본주의 입장에 있던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교리수호대

실험적 사유를 말하고 있다. 실험은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고, 예측과 결과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명료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교회의 정죄에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험이라는 용어자체가 명료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잠정성을 함의하고 있는 바 범위와 제한을 표명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좀 더 자유로운 신학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C.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내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논문 자체가 명료성을 가지게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명료성"을 가질수록 그 용어가 담지 못하는 의미에 대한 물음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며 내가 이해는 범위 안에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성서(Scripture)

내가 사유하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낸 역사성을 내포한 문서들의 전집이다.[15] 성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성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즉 성서 전체 속에서 십자가의 개념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책위원회를 통해 이단문제로 총회에 고소하여 출교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이러한 현장의 경직성을 이해했을 때, "실험적 사유"라는 것은 그 경계선적 사유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즉 명료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명료성이 지니는 세계 안의 의미를 살펴보며, 또한 정치적 경직성에 대안적 의미를 내포한다.

[15] 나는 "내가 사유하는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내가 믿는 성서"와 다른 개념이다. 사유라고 하는 행위는 계속 이해의 지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믿는 다는 행위는 성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기 보다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지지한다는 신념과 관련이 된다.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는 먼저 성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 입장,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료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하비 콕스가 말하는 믿음(Belief)을 의미한다. 하비 콕스에 의하면 믿음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 사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가의 분열을 없애기 위해 기독교 사상 역시 통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결국 그러한 의도성은 신앙(Faith)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실험적 사유의 종말을 맞이했다.[16]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나의 실험적 사유를 위해 성서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개념의 성서는 "내가 사유하는 성서"이지, "내가 믿는 성서"가 아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성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실험적 해석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어떤 교단의 힘에 의한 정죄에서 그 논의와 관련이 없어진다. 교리 논쟁은 믿음에 관한 판정이지 사유에 대한 판정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분열은 믿음에 대한 주장에서 일어난 것이지 사유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더욱이 실험적 사유라고 할 때 이것은 늘 잠정적이다. 나는 이러한 개념 안에서 나의 실험적 사유를 위해 나는 성서의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2. 한국 교회(the Korean Church)

내가 사용하는 한국 교회라는 용어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 전통적인 십자가 이해 안에서 만들어진 한국 교회는 전통적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명료성을 의심하지 않은 채 사유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외면한다. 물론 이러한 일에 대한 저항과 이들을 향한 사유로 목회하는 교회

[16] Cox, 15-18.

들이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한국 교회를 대변하지 못한다.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이다. 나의 논문에서 사용하는 “한국 교회”는 현재 한국 안에서 기독교방송, 설교집, 신앙도서, 언론 등에서 노출되고 있는 거대한 담론의 중심 속에 있는 한국 교회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개념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십자가(Cross)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제국이 죄인들을 사형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다. 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형도구며, 참혹한 형벌을 상징한다. 중국 송나라 문신이며 명판관이었던 포청천(A.D. 999-1062)의 활약상을 그린 중국드라마에 형벌의 도구 중 “작두”가 나온다.[17] “작두를 가져오라!”라는 외침은 정의의 실현을 상징한다.[18] 이러한 사형도구였던 십자가, 로마의 정의 실현을 상징한 십자가가 역사적 예수가 달려 죽은 이후 의미가 달라졌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는 네 가지로 요약했다. “희생으로서의 십자가,” “승리로서의 십자가,” “십자가와 용서,” “도덕적 본보기로서 십자가” 이다.[19] 이러한 십자가의 이해는 성서의 책들 가운데 한 저자, 한 책에서 나온 이해가 아니다. 각 성서들의 책들 중에서 다양한 집필자들을 통해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신학을 바탕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즉 성서 안에서 십자가 이해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발전

[17] Wikipedia(위키피디아), “포증.”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A6%9D (Accessed October 6, 2015). 포청천(1993년작) 한국에 KBS2TV를 통해 1994년10월14일-1996년10월11일까지 방영했던 대만 드라마였다.

[18] 물론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19] McGrath, 503-49.

된 것이다. 나는 성서 안에서 이미 진행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발전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의 개종(A.D. 311) 이후 기독교의 하나 됨을 추구하고 교리화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십자가 이해의 편협은 십자가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놓침으로 퇴색된 십자가 메시지, 개인 윤리화 되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십자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한국교회들의 설교들을 분석하고 또 실험적 사유를 실천하면서 나의 십자가 신학을 통해 그 용어를 다시 한 번 재 설정할 것이다.

4. 실험적 사유(Experimental Thinking)

실험적 사유라는 말은 문학 영역에서 실험적 글쓰기와 함께 등장한 표현이다.[20] 나는 나의 신학에 있어서 좀 더 나의 상황에 맞게 다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실험적이라는 것은 명료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잠정성을 기반한다. 잠정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명료성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의 *서양철학사*(*History of Western Philosophy*)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논리학을 분석하면서 그의 삼단논법,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소전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결론)” 라고 귀결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해 귀납적 추론에서 이러한 연역법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고 할 때 그

[20] Oren Izenberg, “Experimental Writing, Experimental Thinking,” *Program in Poetry and Poetics*, February 26, 2015. https://poetics.uchicago.edu/experimental-writing-experimental-thinking-lecture-oren-izenberg (Accessed October 6, 2015).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귀납적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통해 얻는 지식은 은폐되어 있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논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21]

인간의 의미를 단순히 육적인 것으로 파악했을 때 모두 죽는다는 명제는 옳지만,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할 때는 정신적 인간으로서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실험적 사유라는 것은 분석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의미 있는 대답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때로는 분석적일 수 있고, 때로는 비교비평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조명해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한 인간의 사유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실험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사유는 그 사유를 실천해 보면서 검증하게 된다. 검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계 속에서 그 명료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윤리적 실천과 관련이 된다. 실험적 사유가 분석철학적 방볍과 구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실험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교회의 경직성 때문이다. 나의 사유를 실험적이라고 설정함으로 교리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두 번째는 실험적 사유를 통한 변화의 출발을 삼고자 함이다. 경직된 한국 교회는 경직된 사고를 가진 목회자를 형성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실험적 사유는 경우에 따라 명료성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된다. 거대담론의 중심에 있는 한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때로는 저항 담론의 입장에 서 있

[21] Bertrand Russell,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사*, trans. 서상복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76-85.

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료성들에서 나타난 두 입장은 대립하게 된다. 나는 제 3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아직 정치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험적 사유 중인 잠정성을 가진 형태들이다. 그들은 오늘도 자신을 실험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관찰한다. 나의 실험적 사유 안에는 여성 신학이 있고, 정치 신학이 있고,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실천신학도 있다. 당연히 복음주의적 신학도 거대한 존재감으로 내 사유 안에 존재한다. 계속 비교하고, 서로의 관점을 통해 서로의 사상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내 삶의 실천이 나타난다. 나는 목회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느낄 적대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정치적 입장을 감추기 위해 나는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나의 의도와는 달리 힘 있는 자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실험적 사유가 이러한 침묵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적 사유가 침묵의 형태 속에서 사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험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며,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사유를 멈추지 않는 것은, 실험적 사유의 끝에는 침묵을 깨고 저항하는 힘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나의 실험적 사유와 실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저항하는 힘을 찾아갔다. 다시 실험적 사유라는 것을 정의해본다면 경계선 주변에서의 사유이면서 동시에 침묵을 깨뜨리고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D. 청중 (Audiences)

나의 청중은 한국교회가 제시한 십자가 이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와 목회자이다. 나의 실험적 사유를 통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십자

가 이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식의 사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교회 십자가 이해를 통해 나타나는 한계와 그 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좀 더 심층을 향하는 십자가 이해에 도달하기를 바란다.[22]

E. 논지의 토론 (Discussion of Thesis)

십자가에 관한 이해는 신약성서 안에서 각 권의 저자마다 공통된 이해와 다양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23]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속죄의 죽음으로(마 27:51, 막 15:38, 눅23:45), 요한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의 완성(요 19:30)으로 이해했다.[24] 로마서에서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주장을 한다(롬 6:6). 이러한 주

---

[22] 여기서 "심층"의 개념은 오강남 교수에게서 온 개념이다. 그는 모든 종교에 심층과 표층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층이라는 것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표층이라는 것은 기복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심층 종교는 깨달음 추구하지만, 표층 종교는 믿음을 추구한다. 오강남, *종교 심층을 보다* (서울: 현암사, 2011), 6-16. 머리말을 참고하라.

[23] James Dunn, *Unity &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신약성서의 다양성과 통일성*, trans. 김득중 and 이광훈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1), 25. 제임스 던은 *신약성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에서 서언부분에 "신약시대에 정통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사복음에서 나오는 통일성(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다양성(마태복음의 임박한 종말, 누가복음의 지연된 종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각 신약성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제임스 던은 "통일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용어가 원색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어떤 융통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

[24] 보통 주석들에는 "구속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결국 구속의 사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했다는 의미로 본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요 14:6)로 표현했다.

장은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십자가에 관한 세 가지 다양한 이해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속죄, 둘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 완성, 셋째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종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로 요약 가능하다. 설교자들이 십자가를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요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설교자는 첫째를 강조하고, 어떤 설교자는 둘째를 어떤 설교자는 셋째를 강조한다. 어떤 설교자는 혼합 혹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 세가지 요약에서 벗어난 십자가에 관한 새로운 이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치유”이다. 그 근거는 신약성서에 뿌리는 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이사야 53:5, 벧전 2:24). 본래 이 구절은 병에서 치유되는 것, 혹은 정신적인 병리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죄함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의미를 병 고치는 의미로 확대 이해하게 된 경우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유를 선언한다. 이러한 논리는 병의 근원은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즉 십자가의 권능은 속죄요, 병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에 병도 고침을 받는 다는 논리이다.[25]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26] 그러나 이러한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속죄와 이처럼 연관을 갖는지를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는 병자를 두고 그 죄가 유전이냐, 선천적인 것이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

[25] 이원열, “기독교는 지옥에서의 구원과 질병에서의 치유의 종교이다.” http://usabiblestudy.com/ron_healing/652 (Accessed October 9, 2015).

[26] 사도행전 3장 6절(개역개정).

치유하는 장면이 나온다.[27] 그러나 성경의 전통이 아닌 역사적 이해 속에서 속죄의 개념과 치유의 개념이 혼합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언하는 이해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물론 후대의 십자가에 대한 또 하나의 다양한 이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승호(Andrew Sung Park)는 *죄의 또 다른 양태(The Other Side of Sin)*의 서두에서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룬 또 하나의 책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28] 그의 주장은 피해자 관점에서 십자가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의 요체는 가해자는 회개를 해야 하고, 피해자는 초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십자가를 통한 회개 요청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귀결이 된다.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희생했다고 하는 점에서 피해자인 예수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한 십자가를 너머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초월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박승호(Andrew Sung Park)의 십자가 해석을 통해 전통적인 십자가 해석이 보지 못하는 면을 드러낸다. 십자가의 교리적인 차원에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이들 중에 예수처럼 피해자 또는 희생자 편에 선 주변부인(The Marginal Human Being)에 관한 인식이 약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주변부인으로서 원하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로서, 희생자로서, 주변부인으로서 예수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진

[27] 요한복음 9장 1절-7절(개역개정).

[28] Andrew Sung Park and Susan L. Nelson, ed., *The Other Side of Sin: Wounded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nned-Agains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1-2. 제목을 번역할 때 나는 “죄의 또 다른 양태(樣態)”라고 했다. 여기서 양태란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을 말한다(참고: 네이버사전). 박승호는 죄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는 초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관한 교리적인 해석 즉 속죄, 자아의 죽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의 완성이라는 것 혹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해석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결국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듣는 대상에 있어서 예수의 설교 대상과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즉 예수의 목회처럼 주변부인을 늘 생각하기 보다는 중심부 또는 권력층의 회중을 늘 염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캐스린 그린 매크라이트(Kathryn Greene-Mccreight)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구성 (Feminist Reconstructions of Christian Doctrine)*에서 십자가의 자기희생의 강요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더욱 고착시키는 것으로 가부장성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교리로 인식하고 있다.[29] 캐스린(Kathryn)은 윌리엄스(Williams)의 *흑인 여성의 대리인 경험(Black Women's Surrogate Experience)*의 글 중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는 라는 내용을 인용했다.[30] 그 만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자기희생)이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희생자 구조에 있는 세상 속에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캐스린(Kathryn)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한국 교회의 설교가 배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 반영(critical reflection)없다면 자기희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들에게는 계속, 또한 여전히 억압의 메시지로 남지, 구원의 메시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캐스린(Kathryn)의 주장대로 십자가는 곧 부활로 대체될 것이다.

---

[29] Kathryn Greene-Mccreight, *Feminist Reconstructions of Christian Doctrine: Narrative Analysis and Apprais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0. 책 제목에서 "Feminist Reconstructions"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재구성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기독교 교리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성신학적"이라고 의역을 선택했다.

[30] Greene-Mccreight, 75.

이처럼 성서의 십자가 이해도 다양하지만, 성서 이후 발생한 십자가의 이해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그 폭이 좁고, 그 깊이가 깊지 않다. 그리고 몇 가지 이해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다양한 이해 중 한국 교회의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이처럼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를 소위 전통적 이해의 제한성 아래로 방치한다면 이 세상 속에 주변부인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를 계속 재생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서에서 예수가 가졌던 주변부인들의 친구로서의 이미지는 사라진다. 오히려 예수의 이미지는 가해자의 복음,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복음, 부자와 특정계층의 복음으로 굳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흐름을 저항하는 대안적인 십자가 이해 또는 다양한 십자가 이해에 대해 한국교회가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Chapter II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이해

Theological Understandings of the Cross

A. 사복음서 속의 십자가 이해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Four Gospels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 중에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이해가 책마다 다르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가 잡히기 전 예수를 따르는 이들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렀을 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했다.[31] 마가복음에의 기록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 속에 예수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32] 누가복음의 기록은 같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그 상황을 묘사했다.[33] 요한복음에는 검을 휘둘렀던 가해자가 베드로라고 밝혔고, 피해자의 이름이 말고(Malchus)임을 밝혔다. 이때 예수의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을 남기고 잡혀갔다고 묘사했다.[34] 사복음서 모두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과 공권력 사이에 발생한 충돌을 묘사했다. 마태의 경우 모든 폭력을 부정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가 하면, 마가의 경우 침묵함으로 마치 그러한 폭력에 눈을 감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누가의 경우 중도적인 입장으로 최대한 참고, 혹 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31] 마태복음 26장 52절(개역개정).
[32] 마가복음 14장 47절-48절(개역개정).
[33] 누가복음 22절 51절(개역개정).
[34] 요한복음 18장 10절-11절(개역개정).

예수가 치유한다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요한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마치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행한 일처럼 묘사한다. 4복음서를 비교해서 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예수의 사건에 의해 발생한 충돌에 관해 예수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비폭력적 저항의 입장, 침묵을 통해 폭력적 저항을 동의하는 입장, 비폭력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이 두 가지 긴장을 지닌 채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중도적인 입장, 모든 폭력은 예수와 상관이 없으며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초월적 입장이 있다. 누군가 희생을 당한다고 할 때 성서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한다고 할 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폭력적 저항으로서 그 희생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이다. 폭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두 번째는 저항을 통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폭력에 관해 허용하는 입장에서의 저항이다. 세 번째는 최대한 인내를 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폭력을 동원하는 저항으로서 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든 폭력은 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현실을 떠나 예수의 길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네 가지 입장이 역사 안에서 늘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입장은 마하트마 간디나 한국의 3·1 운동을 예를 들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저항 운동을 통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폭력에 대해 침묵하거나, 최대한 인내한 후 폭력을 동원하는 입장은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의 암살을 계획했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폭력을 세상의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수의 길만을 외치며 초월을 주장하는 입

장이다. 이것을 근거로 교회와 세속정치를 분리하려고 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로 정도로 선을 긋고, 예수의 길을 모색하며 초월을 주장했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수난 앞에 한 제자의 폭력적 저항에 대한 4가지 각기 다른 입장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선을 만나게 한다. 이것은 발전(진화)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보전을 위해 점점 폭력적 저항과 분리하고 초월적 입장에 서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35]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관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36]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복음서는 예수의 수난 앞에 한 제자의 저항을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저항에 대한 4가지 입장을 내 놓았다.[37]

문제는 현재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복음서 중에는 가장 최근의

---

[35] 저작순서를 마가복음-마태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 순으로 볼 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36] 히브리서 6장 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박으려 하냐고 말한다. 즉 다시 예수를 희생자로 만드는 일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생자를 만드는 가해자를 성경이 지지하게 한다는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37]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생명 Feminist Theology: Gender·Spirityality·Life*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225-26. 강남순은 "폭력 개념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폭력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말한다. 첫째는 대체로 폭력을 거부하면서 어느 특정한 폭력을 용인하는 타협적 입장(누가복음)이고, 둘째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라도 거부하는 비폭력 입장(마태복음), 셋째는 기독교 전통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자리잡아온 것으로 폭력은 합법적일 수 있다는 입장(마가복음)이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 어떤 제자의 폭력적 저항에 대한 예수의 입장이 네 저자들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복음서에서 근거한 기독교 전통은 이미 폭력적 저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남순은 사복음서의 전통에서 폭력에 대한 네 번째 입장을 다루지 못했다. 네 번째 입장은 어떤 폭력이든지 예수와 무관하다고 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폭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 입장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대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정치성, 공적 책임성을 회피하게 하는 이론적/성서신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저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한복음의 입장에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초월적 입장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세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그들의 억압과 악의의 은폐에 침묵하며, 예수만 바라보자고 하는 주장을 통해 교회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언제나 힘이 있는 정치 편에 서게 되며, 다수 당이 모여있는 정당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설이다. 교회의 생존을 위한 적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적응을 통해 교회는 희생의 되풀이에 대한 무기력함을 민 낯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동참하는 모순에 빠진다.[38] 히브리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39]

목회자로서 희생자 메커니즘으로 희생당하는 악의 구조를 침묵하고, 희생자들을 향해서 인내와 자기 희생의 값진 가치를 설명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해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된다. 결국 한국교회의 설교가 희생자 메커니즘 안에서 나오는 가해자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40]

---

[38] 히브리서 6:6 (개역개정).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에 의하면 "희생"의 반복은 타락의 이미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39권의 신약성서 안에 한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다. 신약성서 안에 한 번 나타난 구절이지만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금까지 강조되지 않은 신약성서의 전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9] 히브리서 6:6 (개역개정).

[40]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박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희생자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에서 남성의 측면만 드러낸다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B. 초기 기독교의 십자가 이해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Early Christianity)

신약성서 27권이 채택된 이후 기독교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나는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의 *역사속의 신학(Christian Theology)*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구원의 근거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희생으로서 십자가, 둘째 승리로서 십자가, 셋째 십자가와 용서, 넷째 도덕적 본보기로서 십자가이다.[41] 그는 속죄의 개념이 아타나시우스(A.D. 293-373)의 축제의 편지 Ⅶ(Festal Letter Ⅶ)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희생당했다."[42]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이러한 희생 개념은 계속 사용되다가 히틀러가 1930년대 독일 민족 부흥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의 타당성을 부여했고, 이는 곧 "희생"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서 더 이상 기독교 설교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졌다고 한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 신학에는 여전히 그 개념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44]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희생을 확대 해석해서 "희생"과 "헌신"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의식의 결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승리로서의 십자가는 몸 값(막 10:45, 딤전 2:6)에 대한 고

야 한다. 예를 들면 흑인의 차별문제를 다룰 때 흑인의 차별 문제 속에서 여성 차별의 문제는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연구자 본인이 남성으로서 늘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의식해야 할 것이다.

[41] McGrath, 509-37.

[42] McGrath, 510.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재인용.

[43] McGrath, 514.

[44] McGrath, 514.

전적인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45] 그레고리우스(Gregorius the Great)는 “미끼가 끼워진 바늘”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미끼고, 그의 신성은 바늘이라고 표현한다.[46] 즉 마귀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인간인 예수 곧 미끼를 덥석 물었는데 신인 예수라는 바늘을 보지 못해서 망해버렸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잡은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리스터 맥그래스에 따르면 계몽주의 이후 이런 종류의 해석은 유치하다고 생각 되어서 흥미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47]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이후 계몽주의의 약화를 지적하면서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힘”에 대한 속박을 말하면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언급이 지적 영역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48] 십자가의 승리 이미지는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폴 피네스(Paul Fiddes)를 인용하면서 “죽음은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49] 이 말은 폴 피네스가 맥쿼이어(John Macquarrie)의 *크리스천 신학의 원리들(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에서 재인용한 글인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인간의 역사의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행위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밝혔다.[50] 여기서 예수의

---

[45] 마가복음 10:45(개역개정),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6(개역개정),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46] McGrath, 515.

[47] McGrath, 517. 계몽주의 관점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심은 자연스럽게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성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었다. 또한 사탄이라는 형태의 인격적인 악마의 존재, 인간들에 대한 사탄의 지배 개념은 전근대적 미신으로 간주되었다.

[48] McGrath, 519.

[49] McGrath, 520.

[50] Paul S. Fiddes, *Past Event and Present Salvation: The Christian Idea of Atonement* (Louisville, Kentucky: John Knox Press, 1989), 136. 원문 인용. “The act of Christ is one of those moments in human history that ‘open up new possibilities of existence’.” 여기서 ‘ ’는 존 맥쿼이어(John Macquarrie)의 말이다.

죽음은 곧 십자가 희생을 말한다. 예수의 죽음, 곧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말하면서 그 것을 “승리”고 해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예수의 희생을 예수의 승리로 바꿔 말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예수의 희생은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승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인 세계에서 예수에게 일어났던 부활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자를 향하여 함부로 요구하는 “희생”은 “승리”라기보다 인간의 타락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십자가에 있어서 승리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르네 지라드(Rene Girard)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네 지라드는 “예수는 집단 희생양의 하나”로 보았다.[51] 그는 복음서를 “희생” 자체를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2] 지라드의 주장에 의하면 승리란 신화의 구조 속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여긴 것이 부당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의미에서 승리다.[53]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십자가와 용서”라는 주제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소개한다. 그는 11세기 신학자 안셀름(Anselm)을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o)에 대한 대답에 신적 용서의 필요성과 관련시켰고, 이러한 흐름은 13세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서 발전되었으며, 인간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 예수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역사적 흐름을 소개한다.[54] 이러한 흐름은 고스란히 현재 복음주의에 이식되었다.[55] 그러나 그

[51] Girard, 156.
[52] Girard, 163.
[53] Girard, 179, 182, 193.
[54] McGrath, 522-23.

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계몽주의 이후 “원죄”의 개념이 거부되었고, “대속”을 통한 용서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인가?” 하는 물음에 관한 모순됨을 깨닫게 되었다.[56] 결국 이것은 “희생”을 통한 용서가 어떻게 도덕적이냐는 물음과 동일 선상에 있다. 지라드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수 많은 의미의 폭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죄”며, 용서라는 의미는 “인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폭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로 “죄”에 동참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용서”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반복적인 읽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성서 안에 죄를 인식하기 위한 해석학적이며, 정치적인 세계관의 조명(illumination)이 요청됨을 인식해야 한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마지막으로 도덕적 본보기로서 십자가를 소개한다. 그는 어거스틴(St. Augustine)을 인용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떠올렸다.[57] 그러나 이러한 도식이 계속 발전되려면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한 희생 또는 대속의 개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19세기 이성주의자들을 통해 구세주 예수보다는 “순교자의 본보기”의 의미로만 남게 된다.[58]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계몽주의는 약화되었고, “죄”에

[55] McGrath, 529.
[56] McGrath, 525-26.
[57] McGrath, 530.
[58] McGrath, 532-33.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다.[59]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에 관한 죄를 폭로한다.[60]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덕적 측면은 자기를 희생자 메커니즘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보다 이러한 희생자 메커니즘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기심이라는 것은 희생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감추어진 의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이 이 세상의 이기심이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었다면, 그 이후의 "희생"은 비도덕적인 것이며, 늘 비극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도덕적 본보기로서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희생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는 희생의 반복을 막기 위한 반면교사라고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C. 정치신학에서 본 십자가 이해 (An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Political Theology)

김균진은 정치신학을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통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이라고 정의했다.[61] 그는 신학자 세 명을 정치신학의 대표로 손 꼽는다. 요한네스 밥티스트 메츠(Johannes Baptist Metz, 1928 출생)와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1926출생), 도로테죌레(Dorothee Solle, 1929 출생)이다. 이들이 정치신학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의 경험과 관련이 된다. 김균진은 정치신학의 특징을 이 세 학자들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우슈비츠를 통한 신정론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둘 째는 루터의 두 왕국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셋 째는

---

[59] McGrath, 537.

[60] Girard, 179.

[61] 김균진, *현대신학 사상 20th Century Theology*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566.

약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편에 선다고 하는 당파성이며, 넷 째는 헤겔과 칼 마르크스, 에른스트 블로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62]

김균진은 메츠(Metz)의 정치신학을 구성하는 요소를 회상, 이야기, 연대성이라고 보았다.[63]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회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적 전승자"로 위치하게 되며, 회상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감수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것은 곧 연대성을 통한 실천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64]

김균진은 몰트만(Moltmann)의 정치신학을 삼위일체론에 근거했다고 보았다.[65] 김균진은 몰트만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유일신론의 하나님을 대립시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계시하고 유일신론의 하나님은 위계질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66] 몰트만은 *십자가에 못박힌 하나님(The Crucified God)*에서 십자가의 정치신학적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로마제국적 황제의 이미지를 산산히 조각내었으며(shatter), 하나님은 국적이 없으며(stateless)하고 위계가 없는(classless) 하나님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했다고 해석했다.[67]

김균진은 죌레(Solle)의 정치신학을 저항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다. 김균진은 죌레가 역사적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부정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창조의 세계를 보게 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

---

[62] 김균진, 567-68.
[63] 김균진, 576.
[64] 김균진, 577-78.
[65] 김균진, 578.
[66] 김균진, 590-91.
[67] Ju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Gekreuzigte Gott,* trans. R.A. Wilson and John Bowden (New York: Fortress, 1993), 326, 329.

고 세상을 보고 느끼는 중에 결국 세계의 고난과 악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68] 죌레는 십자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녀의 책 *신비와 저항 (Mystik und Widerstand)*에서 말하고 있다. 그녀는 2차 세계 대전 이전과 이후에 반유대주의 정서에 의한 핍박에 대해 저항한 이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침묵을 깨고 고통에 대해 연민으로, 또한 함께 그 고통에 연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죌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본 훼퍼(Bonhoeffer)의 말과 "마취되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슈나이더(Schneider)의 말을 인용한다.[69] 죌레는 십자가의 희생을 해석하면서 예수의 희생을 단순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연민을 갖고 있는 인간의 참여"로 보았으며, 예수 이후 일어난 희생들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아우슈비츠에서 "함께 희생당한 예수"를 떠올리게 한다.[70] 죌레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고난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배적 신학의 침묵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한다"고 했다.[71] 지라드(Girard)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야 말로 모든 악마적 진행 과정의 특징"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다.[72]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곧 저항의 영성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D. 페미니스트신학에서 본 십자가 이해 (An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Feminist Theology)

페미니스트신학(Feminist Theology)은 정치신학 안에 범주로 넣을 수 있으나 따로 소개하는 이유는 정치신학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 미처 분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68] 김균진, 600.

[69] Dorothee Sőlle, *신비와 저항 Mystik und Widerstand*, trans. 정미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34.

[70] Sőlle, 230.

[71] Sőlle, 230.

[72] Girard, 163.

가부장적 요인들 때문이다. 내가 페미니스트(Feminist)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지만, 단지 정치적 주장 이상의 의미들이 있다.[73] 무엇이 페미니스트인가 라고 할 때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남성을 결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생물학적 결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입장에서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휴머니즘(Humanism)적 입장까지 다양하다. 페미니스트 신학은 다양한 해석학적 틀 안에서 조명되고 있고, 페미니스트 신학으로 그 해석학적 틀을 재 조명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신학 자체가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보다 여전히 잠정적이며 발전하고 있다.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신학이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경험을 신학적 성찰의 영역으로 들여왔으며,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신학적 기여를 말한다.[74]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신은 억압받는 자들의 신”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한다.[75] 이러한 이해는 여성으로서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과 연대하고 계신 신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어떻게 “기독교의 신”은 “억압받는 자들의 신”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십자가 이해와 관련이 된다. 강남순은 “여성신학과 예수”라는 글에서 예수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페미니스트신학자들의 고민을 말하고 있다. 그 중에 기독교 전통 안에서 페미니스트로 사유하는 이들의 글이 소개된다. 그 가운데 테니스(Diane Tennis)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페미니스트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는 가부장주의의 죽음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다.[76] 캐스린 그린 매크라이트

[73] 강남순, 6.
[74] 강남순, 45.
[75] 강남순, 47.
[76]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Contemporary Feminist Theology*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Kathryn Greene-Mccreight)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구성 (Feminist Reconstructions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페미니스트 신학 안에서 소피아(Sophia)의 의미를 말한다. 특히 그녀는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Johnson)의 *그리스도의 남성성(The Maleness of Christ)*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해체하는 지혜를 소피아(Sophia)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기독론은 영원한 남성 로고스 혹은 아버지의 아들 같은 남성 예수에 관한 남성 중심의 언어들을 강하면서 은혜로운 여성적 은유들(female metaphors)안에서 해체된다고 말한다.[77] 지금까지 십자가는 희생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희생은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한 것이며, 예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희생 메커니즘을 폭로하게 하였으며, 남성들이 남성 예수를 희생하게 함으로 남성 안에 있는 희생 메커니즘이라는 폭력과 악은 여성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주원인임을 들어냄으로 죄와 악의 본질을 드러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 그 외 오늘도 끊임없이 주변부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순기능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페미니스트 신학이 도전하는 대안적인 십자가 이해다.

152.

[77] Greene-Mccreight, 92-93.

Chapter III

한국 기독교의 십자가 이해에 대한 비판적 조명

(A Critical Illumination of an Understanding of the Cross in Korean Churches)

A. 세월호 사건과 한국 교회의 설교에서 나타난 십자가 이해 (The Sinking of the Sewol (2014) and the Cross in Korean Churches)

나는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위해 인터넷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선택했다. 그 중에 2014년 4월 16일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사건으로 이슈를 모았던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한국교회들의 설교들을 자료로 삼았다.

1. 세월호 사건 (The Sinking of the Sewol)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탑승자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오전 8시 52분경 전남 진도 맹골수도 해상에서 항로를 급히 변경하던 중 배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약 2시간 30분 만에 선수의 일부만 남기고 침몰하면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안타까웠던 것은 희생자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었다.[78] 위기의 순간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과 선원들의 선내 방송을 듣고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더 큰 참사가 났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먼저 탈출하여 큰 비난을 샀다. 또한 세월호 선박회사가 유병언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유병언은 또한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지도자였다. 이 일로 한국 교회는 구원파의 이단성을 중심으로 비난을 하였고,

---

[78] 한국문화신학회, ed., *세월호 이후 신학: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12-13. 전현식(연세대신학교수)의 “세월호 참사, 실재의 침입 그리고 행위의 시민적 주체” 라는 소논문의 서론에서 세월호 사건을 서술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였다.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물어 유병언을 검거하려던 중 구원파 교도들의 저지와 항의를 받았으며, 결국 도주 중에 자살로 추정되는 시신(Dead Body)이 발견됨으로 유병언에 대한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검거는 마무리가 되었다.[79] 하지만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공무사회와 구호체계, 그리고 대통령의 처신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전현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석학적 사건"으로서 "신자유주의 국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이며, "국가 정책의 오류, 혼선과 부재 그리고 국가 권력의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 부패 등 국가 체계의 구조적 악"으로 이해했다. [80] 전현식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던 보통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보상금에 눈이 먼 탐욕스런 자들로, 이들의 편에 선 시민연대를 불온 세력 내지는 좌파 세력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전현식은 "우리가 자신의 행위 안에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간과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잡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악에 대해 침묵하고, 마치 모르듯 행동하는 국민들을 비판한다.[81]

2. 세월호 사건 이후의 설교들과 분석 (Sermons after the Sinking of the Sewol and Analysis)

a. 세월호 사건의 이슈를 설교 안에 선택하지 않음.

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설교들 중에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첫 주 부활절 예배(2014년 4월 20일)와 그 다음 주일 예배(2014년 4월 27일)를 살펴보았다. 그 가

[79] Wikipedia(위키피디아), "유병언."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B3%91%EC%96%B8 (Accessed Nov. 29, 2015).

[80] 한국문화신학회, ed., 15.

[81] 한국문화신학회, ed., 18.

운데 세월호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는 설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설교들 중에는 연구자의 설교도 포함이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의 설교들을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세월호 사건의 이슈를 설교 안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먼저 A교회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내가 3년간 목회를 했던 곳이고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82]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주간 A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성지순례 일정으로 인해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고 난 바로 그 주간 (2014년 4월 20일) A선교사가 대예배 설교를 하였다. 설교 내용은 선교보고에 관한 것과 선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83] 다음 주일(2014년 4월 27일)에는 그 교회 부목사인 B목사가 대예배 설교를 했는데 아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설교였다.[84] 연구자의 설교를 살펴보았다. 강해설교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설교했고, 부활절 절기에 맞도록 그 내용들을 언급했으나, 세월호 사건 이슈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다음 주일 설교에도 역시 예수의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연속된 강해설교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연구자는 당시 그 사건을

---

[82] 표성중, "'사회적 책임'과 '예배회복', 교회 미래 결정," *아이굿뉴스*, September 29, 2011.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34 (Accessed May 10, 2016). 7교단 300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355개의 모델교회를 선정했고, 그 중 상위 30개를 선정했을 때 그 순위 안에 A교회, B교회, 안산C교회, D교회, E교회, F교회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83] 유병국, "부활의 증인"(누가복음 24:13~35), *선한목자교회website (담임목사 유기성),* April 20, 2014.
https://vimeo.com/92435665 (Accessed October 10, 2015).

[84] 김승회, "검으나 아름답구나"(아가서 1:5~7), *선한목자교회website (담임목사 유기성),* April 27, 2014.
https://vimeo.com/93046436 (Accessed October 10, 2015).

언론을 통해 접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교인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설교 안에 그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앞에서 다룬 A교회의 경우도 교회가 이이 정해놓은 일정표가 있었고, 그 일정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었다고 본다. 담임목회자의 부재 속에 내정되어 있는 강사, 이미 정해진 설교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세월호라고 하는 큰 이슈와 교회의 일정표 또는 목회자 개인의 설교 일정에서 일어나는 교차점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방송국의 방송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사회적 큰 이슈가 있을 때 방송 일정 중에도 속보뉴스를 자막으로 보내고, 또 때로는 일정에 있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속보뉴스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국 체계보다도 어쩌면 교회 혹은 목회자 개인의 일정표는 그 유연성이 떨어진다. 즉 방송국의 공적 책임성에 비해 교회의 공적 책임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설교자가 어떤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지,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설교주제들은 배제 또는 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설교자의 인식세계와 설교자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연구자로서 먼저 자신을 비판해본다. 나는 오랫동안 강해설교를 해왔었다. 강해설교의 단점 중 하나는 성경본문 일정이 사회적 큰 이슈에 관해 주제와 거리가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상황과 설교가 분리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통한 설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세월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예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그 주일이 부활절이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의 순서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주제가 분리된 것이다. 연관성을 가질려고 노력할수록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준비가 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당황스런 상황이 전개 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서 딜레마(dilemma)를 만난다. 일상, 즉 평소 설교 일정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과 그 일상을 깨어야 한다는 상황 성이다. 연구자는 그 당시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강했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관해 기도시간으로 대체했고, 설교는 그 사건과 분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선택은 교회의 공적 책임성을 져버린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교회 회중들에게는 사회적 큰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설교를 통해 상황과 말씀을 이분화 시켰다. 이것은 연구자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이슈였던 세월호 사건에 관해 침묵한 설교자들은 이러한 공적 책임으로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공범이 되었다.

b.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된 세월호사건.

소위 복음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혹은 목회자가 있다. 전도프로그램으로 유명한 K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어떻게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인가 화두를 던지고 자연사, 사고사, 순교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사고사 중 하나로 취급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그는 마태복음 28:27의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과 "빨리가서 전하라"는 내용을 인용했다.[85]

사고가 난 지역인 안산C교회 설교에 C목사의 절규가 나온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단원고 학생 7명이 죽었고, 1명이 살아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설교 중간 중간 교인들에게 상실한 목회자의 하소연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핵심은 슬픔을 천국의 소망으로 극복하자는 것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좀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자고 하는 것

---

[85] 안창천, "부활을 꿰뚫다"(마태복음 28:1-10), *D3 website*, April 20, 2014. http://d3.or.kr/wp/20140420074115/ (Accessed October 1, 2015).

이 주된 내용이었다. 결론 부에서 그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도프로그램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었다.[86] 복음전도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주로 사영리 신학을 기본으로한다. 사영리 신학이란 C.C.C 대학생선교회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Bill Bright)가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죄에 빠져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87] 이 전도지에 강조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는 화해의 측면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믿게 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세월호 사건이 인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공적 책임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식의 설교가 단지 복음 전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앙집단 안에서 공유되는 것이라면 큰 반발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양한 상황과 지식층이 자리고 잡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나타날 때 수 많은 오해를 낳게 한다. 과거 설교의 형태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은 이상 장소와 시간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제한된 공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녹음기술, 출판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은 아무리 제한된 공적 의미를 염두하고 싶지만 이미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멤버쉽 (Membership)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이상 누구나 그 설교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다. 즉 설교를 청취하는 대상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처한 이들이

---

[86] 김인중,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7), *안산동산교회 website(담임목사 김인중)*, April 20, 2014.
http://www.d21.org/worship/vod_view.aspx?seq=12171&mode=(Accessed October 1, 2015).

[87]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사영리에 대하여 들어 보셨습니까?* (소책자).

듣게 된다는 공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세월호를 통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고, 국민전체의 애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음전도”라고 하는 주제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하는 질문을 가지게 한다. 교회 장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의 상황에 따라 집례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집례 방식은 달라진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민적 애도기간이라는 것은 그 공적 의미에 있어서 다층적이며, 동시에 다원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복음 전도를 위한 이용이라는 측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감과 오해를 낳게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 기독교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희생제물, 화해, 구원이라는 전통적 견해에 고착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도중심의 교회 혹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신자의 교화도 중요하겠지만, 불신자와 신자에게 함께 애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c.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영적 의미를 찾는 설교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요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설교에서 선택받지 못했거나, 또는 선교적 목적에 세월호 사건을 사용함으로 세월호 사건 자제에 대한 목회적 메시지를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 자체에서 목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산의 C교회의 경우 단원고 학생 7명이 죽었다. 물론 그 교회 담임자의 설교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세월호 사건 자체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 안에서 이미 불신자로서 죽은 이들과 유족들이 철저히 배제된 해석이라

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D교회 D목사는 신정론을 그의 설교에 반영했다. 그는 "주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저 바다"라고 표현했다.[88] 부활절 설교에서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세월호 사건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와 승객들을 구조하는 것을 저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러한 비극을 이용해서 스미싱문자로 국민들의 정보를 빼앗으려는 일당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인간의 황폐성을 짚었다.[89] E목사(E교회)는 사건이 있었던 주간에 있었던 부활절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찬 바다 안에 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희생을 옮겨달라고 간구한다. E목사에게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십자가 희생의 연장선이다.[90]

---

[88] 김기석, "눈물을 삼키고"(마가복음 16:14~18), *청파교회website(담임목사 김기석)*, April 20, 2014.
http://www.chungpa.or.kr/pastorate/preach/template.php?contents=body&code=preach&page=6&number=756&keyfield=&key= (Accessed October 1, 2015).

[89] 김기석, "2014년 4월, 주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는 바로 저 차가운 바다였다. 주님은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 배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한 아이는 전화로 엄마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이어 아빠에게 무서우니 "나 데리러 와"라고 말했다. 그 아빠는 어쩌면 영원히 그 말에 붙들린 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알았을까? 주님도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물으며 그들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다. 주님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무리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차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거기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숨을 거두셨다. … (중략) … 저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이들은 우리의 사람됨을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90] 박종화, "가득찬 영광"(이사야 40:26~31, 베드로전서 1:3~5, 요한복음 21:1~14), *경동교회website(담임목사 박종화)*, April 27, 2014.
http://www.kdchurch.or.kr/html_worship/worship_home.asp?seq=2291&left=0&ws=%C1%D6%C0%CF%BF%B9%B9%E8 (Accessed October 1, 2015).
박종화 목사는 설교 본문중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갈릴리 바다)를 언급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픔이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설교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신정론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두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신정론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영적인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생각한다. 일단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적인 상황성이 극복되고 있다는 점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신정론에 의거한 신학적 관점이 반영됨으로 이러한 비극을 체험하고 있는 이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신자와 국민들에게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d. 세월호 사건과 저항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014년 5월 20일 향린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총체적 부패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라"는 규탄성명이었다.[91] 한국 교회 안에서 진보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는 교단과 교회였다. 이러한 시국 선언과 규탄하는 집회는 한국 정부를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연대를 했다.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L목사(분당O교회)는 4월 20일 설교에서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면서 책임에 대해 말하기 보다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희생자들과 함께 있다. 나는 진도바다 속에 있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한다고 했으며 "죽어간 그들은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항의했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 이야기를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했고, 십자가에서도 예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와 십자가의 예수와 상관관계를 묘사하였다.

[91] 성상현, "세월호 슬픔, 월드컵 되면 끝난다구요? 아직 멀었습니다," *유코리아뉴스,* May 21, 2014.
http://m.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 (Accessed October 2, 2015).

했다.[92] 4월 20일 설교 이후에 논란이 일어났다. 불의에 침묵하자고 하는 듯한 뉘앙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침묵하라고 한 것을 비겁한 침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우리교회 성도들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잘못된 정보(우리교회 학생이 연루되어 있다, 배에 우리교회 학생 4명이 갇혀 있다 등)가 떠돌아 확인 전화가 왔고, 아직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분석보다는 깊이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라" 해명했다.[93] 4월 27일 설교에서 3가지 행동지침을 말하는데 "의로운 분노"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고 했다.[94] 그러나 여기서 "의로운 분노"는 분당우리교회 안에 있는 정치가들이 나서서 불의한 구조를 고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윤창출에만 몰입하지 말고 고용극대와 사회환원을 하라는 요구로 이어졌다.[95] 그러나 다시 이 울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자고 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설교를 마친다.[96] 국가의 "불의한 구조"를 고치는 일에 대해 "교회 다니는 정치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

---

[92] 이찬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분당우리교회website(담임목사 이찬수)*, April 20, 2014. 최근 1년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관계로 유튜브의 링크로 출처를 대신함. https://www.youtube.com/watch?v=rghk_t2eHGs (Accessed May 9, 2016).

[93] 이대웅, "이찬수 목사, '세월호' 언급 설교 논란… '해명' 나서," *크리스천투데이* April 25, 2014.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1771/20140425/%EC%9D%B4%EC%B0%AC%EC%88%98-%EB%AA%A9%EC%82%AC-%EC%84%B8%EC%9B%94%ED%98%B8-%EC%96%B8%EA%B8%89-%EC%84%A4%EA%B5%90-%EB%85%BC%EB%9E%80%E2%80%A6-%ED%95%B4%EB%AA%85-%EB%82%98%EC%84%9C.htm (Accessed May 9, 2016).

[94] 이찬수, "하나님 앞에서 울다."(역대하 7:13~14), *분당우리교회website(담임목사 이찬수)*, April 27, 2014. 최근 1년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관계로 유튜브의 링크로 출처를 대신함. https://www.youtube.com/watch?v=Aie20bhxziA (Accessed May 9, 2016).

[95] 이찬수, "하나님 앞에서 울다."

[96] 이찬수,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고 회개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는 설교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의한 구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 뒤로 은폐되며, 하나님께 토해내자고 하는 말은 불의에 대한 울분을 연대와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구조를 향하여 저항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들리게 된다.[97] 향린 교회와 분당O교회의 두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저항에 대한 한국 교회의 두 가지 입장이 뚜렷이 대조된다.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직접적인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와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을 책임자로 다루면서 저항의 대상을 모호하게 만듦으로 개인차원의 윤리로 머무르자는 분위기이다.

B. 십자가에 대한 비판적 조명 (Critical Illumination of the Cross)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설교들을 살펴보았으며, 설교 안에서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 지를 중심으로 큰 주제별로 분석해 보았다. 사건이 있었던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2014년 4월 20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민전체가 술렁일 때였다.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국민들은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공황상태(panic)에 빠진 경험이었다.[98] 방송사들은 오락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

[97] 김인중, “책임있는 자녀들로 키우라.” *안산동산교회website(담이목사 김인중)* April 27, 2014.
http://www.d21.org/worship/vod_view.aspx?seq=12185&mode= (Accessed May 9, 2016). 김인중 목사는 27일 설교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부모들이 책임이고, 지도자들이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국민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내용은 저항보다는 개인의 반성으로서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98] Wikipedia(위키피디아 영문판), “panic” 그리스 신화에 Pan이라고 하는 목동의 신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 한다. 평소에는 파이프를 연주하면서 평화롭게 있지만, 낮잠에서 깰 때 요란한 소리로 양떼들이 놀라서 흩어지게 한다고 한다. 이 때 “갑작스런 공포”를 의미하는 어원이 만들어졌다.
https://en.wikipedia.org/wiki/Panic (Accessed May 9, 2016)

다.[99] 이러한 한국의 상황 속에 한국교회의 설교는 어떠했을까? 어떤 설교자는 그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전도프로그램을 위해 세월호 참사가 인용되기도 했다. 또한 의외로 세월호 참사가 인용되지 않은 설교들도 많았다. 물론 설교 전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유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설교와 세월호 사건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상황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상황보다 더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때마침 4월 20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모든 본문은 부활절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교회적 상황에 세월호 참사가 맞물린 것이다. 충분한 애도가 끝나기도 전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 해야한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잘 맞지 않다. 진보주의성향의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는 부활절 설교에서 "십자가"의 강조점이 나온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한 유족들의 마음과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신정론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방송국들이 특히 오락방송이 복귀하는데 6주가 걸렸는데, 한국교회 설교자의 설교에서 "세월호의 사건"은 3-4주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주의 성향의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중시하는 복음주의 성향의 설교자들은 그것이 더욱 심하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 나는 결국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 신학과 철학적 사유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재난, 사고, 참사는 수많

[99] 멀티미디어부 기자, "개콘 오프닝, 출연진 전원 세월호 참사 애도 시청자 여러분께 위안이 되길," *부산일보*, May 27, 2014.
http://board.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527000033 (Accessed May 9, 2016). 이 기사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코미디프로가 6주만에 복귀했다고 소개한다.

은 희생자들과 관련을 맺는다. 기독교 전통에서 희생은 십자가와 관련을 맺는다. 결국 희생자들을 발생한 상황은 십자가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해 속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1. 희생으로서의 십자가 (the Cross of a Sacrifice)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두고 봐야 한다. 먼저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희생제물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희생제물이란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몸값이다. 인간과 신의 관계를 풀어주는 몸값으로 희생물이다. 이것은 승리로서의 십자가 이해와 관련을 맺는다. 승리라는 의미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방해자인 예수를 처단한 것이 오히려 몸값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 졌다고 하는 점이다. 즉 십자가의 승리라는 이미지 안에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의 성취에 있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원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를 위한 십자가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다.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의 희생에 대한 베드로라고 알려진 제자의 저항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한 제자는 폭력을 사용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자신이 당할 희생을 보며 저항하는 "폭력"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말한다.[100] 희생을 당하는 것이 승리일까? 아니면 희생을 막는 것이 승리일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속죄의 신학을 위해 사용되는 십자가의 승리를 성도들의 삶에 비판없이 수용함으로 마치 희생을 당하는 것이 승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희생을 막아섰던 것처럼 오늘 날 진정한 승리는 희생을 막는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100]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 Chapter Ⅱ "사복음서의 십자가 이해"를 참고하라(18-22).

희생으로서의 십자가에는 용서라는 측면이 있다. 용서의 개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안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가해자 인간, 그리고 피해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죄 또는 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죄 혹은 악은 예수를 못박는 행위 안에서 설명된다. 예수를 못박은 행위는 그 때 당시 직접적으로 못을 박은 로마군인과 이러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빌라도와 예수를 고소한 산헤드린 종교지도자와 이를 동조한 군중들이다. 그런데 예수를 못박은 행위에 공범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가된다.[101]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무관한 나 역시 예수를 못박은 행위에 대해 공범이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것이다.[102]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나는 가해자가 되었고, 예수는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예수는 나를 용서했으며, 나는 용서받은 가해자가 된다.[103]

그렇다면 예수의 희생에 대해 용서받은 가해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일까? 그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는 그런 희생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는 “저항감”을 떠올려야 하는 것 일까? 이 점에 대해 기독교 전통은 늘 “고마움”을 떠올리는 쪽으로 갔다. 실재로 십자가와 감사를 연결한 설교와 찬송

---

[101] 사도행전 2:36(개역개정판)에 따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한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온 집”으로 확대되고 있다.

[102] 로마서 3:23(개역개정)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3] 에베소서 4:32(개역개정)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들이 많다.[104] 사실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적당하지 않은 이해였다. 홀로코스트로 인해 수많은 유태인의 학살과 이러한 "희생"에 침묵했던 독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수치감이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의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는 신정론의 질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유행시켰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해석에 위로를 받았지만, 많은 지성인들은 신의 부재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희생자와 희생자와 관련된 이들을 위로하는 차원에 관련자들을 사형을 하고, 이러한 희생의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기념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같은 사람은 "악의 평범성"을 말하면서 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와 개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105] 자신의 스승이었던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철학은 윤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106]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성에서 볼 때 비윤리적이다. 오히려 십자가의 희생에

---

[104] 이정훈, "감사하세 십자가."
https://www.youtube.com/watch?v=buj6WQgYk_Y (Accessed May 9, 2016). 이정훈의 "감사하세 십자가"의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다. "감사하세 십자가 구속하심 감사해. 죄와 수치 지시고 사랑으로 은혜 주셨네. 감사하세 그 은혜 못박히심 감사해. 보혈로 날 씻어서 용서하고 용납하신 큰 사랑 존귀한 어린양 보좌의 주님. 승리의 면류관 쓰고 주 다스리시네. 높임 받기에 합당한 예수. 십자가 하늘의 사랑 존귀한 어린양." 십자가에 대한 이와 같은 감성적인 이해가 오늘 기독교 전통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105]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trans. 김선욱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경기), 391. 한나 아렌트는 후기에서 전범인 아히히만이 가지고 있던 악의 평범성 또는 일상성(banality of evil)이란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라 말한다.

[106] Arendt, 32. 정화열은 이 책의 부록으로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의 *Responsibility and Judgment*의 글을 인용하면서 판단의 기능이 곧 사유의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신의 스승인 "하이데거"를 포함하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은 판단을 한다고 보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해 가해자로서 죄책을 느끼고,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항심을 고취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한나 아렌트는 사회 전반적인 이데올로기에 감추어져 있는 "악의 평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오늘 날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고마움 쪽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죄책과 저항이라는 윤리적 책임으로 향해야 할 것인가하는 신학적 물음과 연결되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에 관한 이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문을 열어준 것이 기독교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 밖에서 나왔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드(Rene Girard)는 십자가를 통해 희생양 메커니즘을 분석했으며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있어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다른 신화에서 나오는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 차이라는 것은 희생양을 만든 가해자들이 희생양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르네 지라드의 이론을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통"에 대한 "믿음"(Belief)때문이다.[107] 르네 지라드가 인류학자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을 시도했다고 하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108] 나는 르네 지라드의 이론을 통해 전통적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이 이 세상에 은폐되어있는 폭력을 폭로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함께 악한 세상을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사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

[107] 하비 콕스의 개념이다. 하비 콕스는 믿음(believe)와 신앙(Faith)을 구분한다. 믿음은 교리에 의지하는 것이고, 신앙은 교리에 멈춘 것이 아닌 발전하고 성숙하는 개념이다. 오늘 시대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08] Girard, 16. 르네 지라드는 서문에서 자신의 책,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가 기독교의 변증으로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제자의 폭력을 통해 “희생양 메커니즘”을 저항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관찰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각자 달랐다. 현재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이해는 요한복음의 단편적인 이해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익명의 제자로 소개되었지만 요한복음 만 유독 베드로라는 실명을 드러낸다. 또한 요한복음만 유독 베드로의 폭력적 저항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며, 또한 세상이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예수의 해명으로 관철이 된다.[109] 이러한 귀결은 “희생 메커니즘”에 대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의 희생과 부활은 제3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믿는다(believe).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었다. 예수의 희생에 대해 익명으로 가리워진 제자의 폭력적 저항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저항하는 방법으로써 폭력에 대해서만 비판했지, “저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110]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폭력적 저항에 대해 오히려 예수는 침묵했으며, 더욱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명의 제자가 공권력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휘두른 칼에 맞아 절단된 공권력의 하수인의 귀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말한다. “이것까지 참으라.”[111] 이러한 예수의 태도와 말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지지하고 있는 악의 구조에 대해 적정 수위가 넘어설 때 강력한 저항을 지지하는 의미로 들린다. 더욱이 희생자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공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

---

[109] 요한복음 18:10-11(개역개정)

[110] 칼을 쓰는 사람을 칼로 망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저항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저항을 하는 방식에 대한 말이다.

[111] 누가복음 22: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2. 세월호 사건과 십자가 (The Sinking of Sewol and the Cross)

고난 주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4월 16일 재의 수요일)과 이 사건이 수습도 안 된 채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 설교를 맞이해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은 부활절 설교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었다. 한국 사회에 핵폭탄과 같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이슈와 전통적 절기가 부딪혔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부활절기에 맞게 설교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전통에 안식일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바꾸었다.[112]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주일 예배는 부활절이었다. 부활절의 전통적 이미지는 기쁨이고 잔치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슬픔이고 장례식이었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주제는 옳다. 그러나 "희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희생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 한 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용서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목회자가 가졌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월호 사건과 십자가를 나란히 놓고 볼 때 십자가를 통해 폭로된 폭력처럼 세월호 사건을 통해 폭로된 무수한 폭력의 의미들을 되 짚어 보았을 것이다. 이익을 위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이상을 싣는

[112] 마가복음 2장 27절-28절(개역개정)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해석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달랐다. 출애굽기 31장 14-15절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민수기 15장 32-36절은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사람을 잡아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다. 마가복음의 가르침은 모세오경의 강경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는 상이하다. 기독교전통은 해석 지평을 넓혀가는 방향이다.

행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박이다.[113]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예수를 협박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선장은 회사측과 상의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구조선에 올라갔다. 예수가 잡혀가는 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모두 살길을 찾아 도망갔다. 국가는 희생자를 구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보고가 올라가서 "전원구조"라고 하는 자막이 뉴스속보마다 떴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규명하라고 하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114] 대통령은 눈물로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지만, 철저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문제의 성격을 변질시켜 놓았다. 예수는 스스로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짓제보에 빌라도 법정까지 섰다. 진실은 은폐되었고 희생의 과정을 밟아가야 했다. 총 책임이 있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몇몇의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지겠다고 하는 책임은 어떤 의미에서 해소되고 있는가? 이들의 모습과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 메커니즘 안에서 폭력에 대한 어떤 공모와 속임수가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113]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서울: 미지북스, 2015), 179-202. 재판과정에서 세월호는 적재적량인 1,077톤의 두배 이상의 화물을 싣고 1년동안 매 주 2-3회 운항을 했다. 피고인 안기현은 적재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2014. 10. 24).

[114] 최지용, "세월호 사고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방 묘연" 오마이뉴스, July 8, 20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579&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Accessed May 9, 2016).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서면보고 되었으며, 10시 15분에 유선보고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날 때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 대면 보고 혹은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아직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방송사들과 신문사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은 희생자들과 남은 유가족들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115]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저항의 몸부림을 치면 곧 종북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놓았다.[116]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은 이미 산헤드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회중심리를 자극했던 것임을 드러냈다(마 27:20, 막 15:11). 세월호 사건이후 막말로 인한 파장들이 있었다. S목사는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했다.[117] J목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118]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서 모욕을 당했고, 죽고 난 이후 예수의 추종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받았다. 세월호 사건을 통한 희생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희생자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3. 순응하는 십자가와 저항하는 십자가 (The Cross of the Acceptance or the Resistance)

전통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순응하는 십자가이다. 복음주의 경향의 교회,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 모두 십자가를 이해할 때 고난에 대한 순응의 면을 강조했다. 신정론적

---

[115] 이재훈, “새누리 한기호, ‘세월호 참사’ 비판 여론에 ‘종북 색깔론’.” *한겨레신문* April 20, 2014.
http://www.hani.co.kr/arti/ISSUE/124/633617.html (Accessed May 9, 2016).

[116] 조혜지, “'세월호 추모=종북'이라는 사람들… 무지도 죄다 세월호 추모 무조건 비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란 리본 달 겁니다” *오마이뉴스* April 16, 20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9582 (Accessed May 9, 2016).

[117] 강만원,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뉴스M*, June 21, 2014.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7 (Accessed May 9, 2016). 강만원은 김삼환 목사가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선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설교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118] 강만원,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수준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저항은 성경과 전통의 뿌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특히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저항에 대한 가르침은 비성서적인 것으로 오해한다. 저항은 폭로로부터 시작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폭력의 가시적인 면과 비가시적인 면까지 모두 폭로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어떤 공모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으며, 선동과 조작이 있었는지 폭로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십자가는 이 시대의 폭력 구조와 진실을 은폐하는 구조를 폭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성서의 흐름과 다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러한 폭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회개는 강조한다.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일종의 폭로에서 출발한다. 십자가를 통한 회개는 죄의 폭로의 기능이 있지만 개인적이지 공적이지 않다. 일반 사회에서 공적인 폭로는 주로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공적인 폭로를 한 개인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다.[119] 초대 기독교의 형성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폭력적인 세상을 폭로한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며, 그러나 폭로를 통해 세계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면서 세상의 저항하는 사람들로 모였던 것이 교회이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저항의 의미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다. 예수의 사랑은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으며,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권력을 쥔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박해당하는 자 편에서 설교를 했다.

---

[119] 김태훈, "내부고발자, 그 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못 믿을 구석'." *주간경향*, Noember 26, 201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11191953421 (Accessed May 9, 2016). 김태훈 기자의 글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조직 내에서 양심적 고발을 할 경우 조직안에서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는 것에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집의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들이 동종 업종에 취업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이다(2013년 6월 2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희생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속죄로서 해석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함 받는다고 했다. 두 번째 자아의 죽음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가르쳤다. 현재 이 두 가지 관점에 합쳐지면서 복음주의적 설교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의 길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영성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희생자 메커니즘에 관해 순응하도록 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유족들이 고통과 눈물과 분노의 감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에 구원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혈기, 분노, 비판적인 마음까지 모두 자아로 취급되며 십자가에 처리해야 할 것이 된 것이다. 2014년 4월 20일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세월호 사건은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경종으로 이해가 되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 희생자를 만드는 구조를 향해 저항하기 보다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자고 함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웠다. 한국교회는 전통 속에 가리워진 전통을 드러내야 한다. 예수의 희생 앞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어떤 제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닐 수 있다. 사도요한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무명의 저항자에 베드로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세상도, 저항하는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가 직접 “저항”에 대한 기본 의지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저항의 방식에 있어서는 비폭력적 저항일 수 있

고, 때로는 최소한의 폭력적 저항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적극적인 폭력적 저항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로 향하는데 “희생자 메커니즘”을 깨뜨리기 위한 저항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적 삶을 살았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 않았다. 바로 육체적 생명의 죽음이었다. 희생자 메커니즘을 만드는 세력은 작은 세력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의 구조이다. 이것을 깨뜨린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항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Faith)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저항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십자가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십자가를 구원의 복음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세계의 불의에 침묵하는 종교요, 교회의 보존을 위해 자기들의 손익계산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십자가를 통한 영혼구원을 외치며, 교회의 양적 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은 예수뿐 아니라, 수 많은 주변부인들의 희생을 계속 요구한다. 희생양을 요구하는 사회는 결국 예수를 다시 못박는 불의한 체계라는 점을 한국 교회가 인식해야 한다.

Chapter Ⅳ

대안적인 십자가 신학의 제시

Theology of the Cross against as the Cross for the Korean Churches

A.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체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The Cross for the Redemption to the System to Make a Sacrifice)

르네 지라드의 모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경쟁은 곧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 곳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20] 르네 지라드에 따르면 신약성서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십자가는 신학화 되기 이전에 문학비평적 시각에서 당시 신화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신화들이 희생자 메커니즘을 낭만화하고, 미화하는 반면에 신약성서에서의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자 메커니즘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쪽이 있다는 것이다. 르네 지라드에게 희생자 메커니즘은 사탄의 모습이다.[121] 예수의 십자가는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르네 지라드의 이론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주장된 십자가의 복음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된 한 메시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십자가 자체가 사탄의 모습을 적나라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탄의 모습은 바로 르네 지라드가 주장하는 희생자 메커니즘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 희생자를

[120] Raymund Schwager,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희생양은 필요한가?*, trans. 손희송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36-41.

[121] Girard, 116. "사탄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또한 인류 문화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이 바로 이 살해에 있기 때문이다. 카인의 문화뿐 아니라 모든 인류 문화의 기원에는 결국 악마, 달리 말하면 나쁜 모방에 있다."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서 구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희생자 메커니즘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에 있다. 모든 구원은 정직한 직면에서 시작된다. 제임스 콘(James H. Cone)은 *눌린자의 하나님(God of the Oppressed,* 1975)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백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흑인의 현실을 정의하고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려고 했다. 그들의 정의는 물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이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은 흑인을 백인의 종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흑인들은 의례히 백인들의 논밭을 갈아야 하며, 그들의 집 청소를 해야 하며, 그들의 잔디를 깎아야 하며, 그들의 제재소에서 일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백인 사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자기의 자리로 보내진다는 것은 비어든의 흑인들에게는 하나의 무서운 현실이었다.[122]

제임스 콘은 해방신학을 통해 흑인들의 경험 속에서 백인의 관점에서 규정된 신학을 비판하고 "눌린자의 하느님"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억압받고, 차별 받는 흑인들의 신학을 설명해 가고 있다.[123] 나는 해방신학의 출발이 희생자 메커니즘의 폭로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신학 이론이 아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경험 속 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곧 일상에서 진실을 인식하는 하나의 깨달음이고,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을 깨뜨리는 순간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말한다는 것은 곧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희생자 메커니즘이 지배된 사회 일수록 이러한 경험 속 진실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말하는 것 자체가

---

[122] James H. Cone, *God of the Oppressed 눌린자의 하나님,* trans. 현영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15.

[123] Cone, 238-245. 제임스 콘은 고난에 대해 서구전통 신학은 형이상학적으로 흘렀다고 비판한다. 즉 악의 기원을 탐구하지 인간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콘은 성서에서 하느님이 눌린 자들에게 인종 차별 주의의 죄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분으로 주장한다.

어렵다. 첫째는 지배자 계급에서부터 시작된 세뇌이다. 세뇌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세계관의 주입이다. 세상에서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들이며, 소위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학적 또는 신학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시작할 때 진실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은폐된다. 다시 말하면 세뇌라는 것은 진실이 은폐된 인간의 정신 세계를 말한다. 두 번째는 공포이다. 공포감은 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대한 힘에 눌리는 현상에서 나온다. 나에게 일어나는 경험에 관해 진실을 말할 때 희생을 강요하는 실체의 힘과 마주치게 된다. 나에게 힘을 강요하는 실체의 힘보다 강한 힘이 있다면 그 공포감을 이기고, 진실을 말하며 상대의 힘을 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진실을 감추는 쪽이 힘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깨닫고 보면 큰 공포에 사로잡히기 된다. 제임스 콘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자:

> 나와 내 동생은 복음의 교훈을 가지고 비어든의 백인들과 대결할 필요가 있다고 가끔 논의했다. 일요일 예배시간에 그들의 교회에 들어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집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당할 보복이 무서워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124]

희생자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진실은 늘 감추어져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희생자 메커니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가능하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분노는 공포로 바뀌고, 죄책감은 변명으로 바뀐다. 이러한 상황성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는 자신을 희생

[124] Cone, 16.

시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실체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노에서 공포로 바뀌는 억눌린 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예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빠지지 않았다.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메시지가 전해질 때 희생자 메커니즘 안에 있었던 유대인 회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의 십자가를 수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명과 함께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와 똑같이 희생자 메커니즘 속에서 살해되었다.[125]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러한 살해 속에서 복음 전도자는 공포에 얼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에 관한 희망을 가지고 더 용기 있게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다고 말해준다. 여기서 나는 희생자 메커니즘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새롭게 인식한다. 첫째는 십자가는 희생자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는 악마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자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메시지는 가해자에게 회개를, 피해자에게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임마누엘(God with us)"의 축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126]

B. 악을 기억하고 저항하는 십자가 (The Cross to Recall and Resist about the Evil)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를 떠올리고, 속죄의 은총을 생각한다. 그리

---

[125] 사도행전 2:37의 바울의 설교 후 반응과 사도행전 7:57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 반응을 비교.

[126] 나는 임마누엘의 개념을 피해자와 하나님과의 연대 또는 희생자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는 약자와 하나님과의 연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더욱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연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희생자 메커니즘을 저항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의 연대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준 것은 이러한 연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고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 좀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한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감추어진 악, 곧 희생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사탄적인 힘이 있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러한 악, 곧 희생자 메커니즘을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사탄적인 힘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러한 악은 무죄한 예수를 희생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악의 힘에 있어서 인간은 깨닫지도 못했고, 저항하지도 못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실존을 확인했으며, 부활을 통해 이러한 악의 힘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실존 이상의 초월적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있음을 알려주었다. 도로테 죌레는 예수에게서 저항의식을 발견했다:

> 요한복음에 예수가 "나는 빵이요, 물이요, 빛이요, 생명이다"에서 처럼 "나는 ……이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는 데서도 알게 된다. 이 말은 전혀 불안감이 없어야 해낼 수 있다. 예수는 그런 발언으로 권력자들에 맞섰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다.[127] 폰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수의 희생에 대한 악의 인식이 한 개인의 죄책을 넘어서 연대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식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과 함께 하고 있다. 매 주일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연대감을 이룬다. 이러한 연대감은 교회를 이루게 하였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저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십자가의 기억은 성만찬을 통해 계속 기억되었으며, 그 기억 속에 연대감을 이루었

[127] Dorothee Sőlle, *Das Recht auf ein Anderes Glück 다른 행복의 권리,* trans. 손규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18.

다는 것이다. 저항은 곧 기억의 지속과 연대감 속에서 기초가 다져지고, 악을 인식함으로 그 악을 저항하게 된다. 여기서 저항이라는 것은 곧 다시 예수의 십자가가 이 세계 속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128]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과 행동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부분에서 나는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것, 즉 성령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이해된다.[129]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리고 다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성(gender), 인종, 경제, 국가, 언어, 장애인 등-에 관해 교회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가? 이러한 공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참여를 꺼리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공유하거나,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세월호 사건과 같은 희생자 메커니즘의 이슈가 떠올랐을 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목회자의 침묵 또는 이것을 순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전도에 힘쓰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 교회의 설교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정당성을 주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메시지는 가해자를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피해자 혹은 희생자 또는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한국교회의 십자가 신학에 관한 인식 속에서 어떤 대답을

---

[128] 히브리서 6:6 (개역개정).

[129] 요한복음 16:8(개역개정).

줄 수 있을까? 결국은 십자가의 공적 의미를 사유하고, 묵상하면서 그 대답들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악을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며(상징성), 저항하도록 이끌어 주는지 성경과 세상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잠정성을 인식하고 질문과 사유 속에 인식의 세계를 넓혀가야 한다.

C. "용서"에 대한 십자가 신학에 대한 의문들 (My Questions of the Cross for "the Forgiveness")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통해 "속죄"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인간-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해석이 된 적은 없다. 한국 교회의 신학적 오해는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과 인간과의 용서로 너무 성급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이미 그 단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상황성을 함의하고 있다. 즉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의 사건을 기반으로 용서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용서 역시도 어떤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반이 요청이 된다. 만약 한 인간이 타인을 살해하였다면, 그 타인이 다시 살아나는 조건으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에게는 가능하였지만, 실존 안에서 살해된 인간에게서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난 이들에게서는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조차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 용서를 사유할 때 우리는 어떤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을까?

십자가의 첫 번째 기능은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가

가능해 질려면 가해자 안에 악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에서 나치 전범인 아히히만에게서 느낀 절망은 그가 자신의 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히히만을 발견했다.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의미를 사유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존주의에서 "소외"라는 개념으로 분석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다층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지 인식해야 한다. 도로테 죌레는 "죄의 용서"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 죄를 사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130] 이러한 개념 속에서 죄는 내가 커피를 하나 사먹는 것을 통해 커피를 제공하는 기업이 행하고 있는 제 3세계에서 일어나는 착취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죄 인식을 하게 한다. 도로테 죌레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유대교 교사의 말을 인용하는 데 "사람의 큰 죄는 저지른 죄가 아니라 매 순간 돌아섬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한다.[131] 도로테 죌레의 죄의 개념도 르네 지라드가 인식했던 희생자 메커니즘과 사실 "폭로"라는 점에서 교차점이 있다. 이러한 감추어진 악의 폭로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된 악의 사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의 십자가는 악을 사유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 상징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의미들을 떠오르게 하고, 사유하게 한다. 이러한 사유가 한 개인의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까지 닿아서 악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의 가능성은 한 발자국 다가 서게 된다. 이러한 십자가의 기능에 있어서 단순한 인식을 넘어 도로테 죌레가 말하는 "돌아섬"의 도덕, 윤리적, 그리고 공적 책임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130 Sőlle, 48.
131 Sőlle, 51.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다.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이를 근거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전통적 이해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설교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용서는 신학적 문제이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용서는 인간학적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학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학적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학적 문제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해자의 “악”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적 요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해자로서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용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용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피해자의 공허한 용서 행위이며, 피해자가 오히려 죄를 지은 타자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가 개인과 집단의 문제로 확대되면 더욱 복잡해 진다. 개인이 가해자로, 집단이 피해자인 상황도 있지만, 집단이 가해자로 개인이 피해자로 상황

이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과정을 풀어가야 할까? 그런 면에서 세월호 사건 속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들의 악을 인식하면 할수록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직면할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며, 어떻게 주장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과 주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인식 되어지며, 왜곡되어 지는지에 관한 복잡한 양상들로 전개 되어진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왜곡의 도구로 사용된다. 소위 신정론적 해석에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는 표현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을 만들고 있는 악에 관해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은 피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엘리 위젤은 하나님의 부재를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발견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용서에 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해자의 악에 관한 무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박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향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132] 하나님의 사랑이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의 무지에 대한 이해심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당당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133] 이것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132] 누가복음 23:34(개역개정),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133] 누가복음 22:70(개역개정),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사랑은 약자를 향해 지지해 준다. 그러나 강자를 향하여는 그 무지를 이해하는 정도이다. 여성신학에서 여성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저항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인종차별에 관해 자신을 한 인간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해가 굉장한 큰 동력이 되었다.[134] 하나님을 나를 창조한 부모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차별과 폭력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는 우리에게 희생자 메커니즘 속에서 저항을 일깨우지 못했지만, 가해자의 무지에 대한 이해심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희생자 메커니즘의 개인과 집단의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복잡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 십자가: 자아의 죽음과 투쟁하는 자아의 탄생 (The Cross: The Selflessness and Birth of Ego to Resist)

전통적으로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 안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135]

이러한 바울의 신학을 배경으로 자아의 죽음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혈기,

---

[134] Cone, 247. 제임스 콘은 노래 가사를 소개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란다,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란다, 거짓말은 아니겠지, 허허, 그런데 우리를 다 같이, 허허,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135] 갈라디아서 2:20(개역개정).

고집,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과 연결을 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윤리적인 적용은 아이러니하게 사회정치적 의미에서 공적 책임성에 관해 침묵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인식의 사각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기심을 줄여가고,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를 향한 도덕적 책임감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자아의 죽음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공적 영역 속에서 책임 있는 소리를 낸다는 것에 있어서 "자아의 죽음"보다는 투쟁하는 자아로서 탄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테 죌레는 현대적인 자아의 개념을 사용한다. 죌레는 프로이트에게서 가져온 초자아의 개념을 가지고 자아를 억압하는 초자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136] 죌레는 초자아의 억압 없이 예수의 강한 자아를 대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수의 강한 자아는 하나님과 연합에 있다고 보았다. 죌레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 동일시 하는 예수의 권리를 나도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7] 그러나 이러한 죌레의 주장에 대해 나는 심리학의 개념차용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장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 동일시하는 예수의 권리가 자칫 인간의 전능환상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인간의 교만으로 비춰질 것에 대해 염려한다.[138]

그렇다면 이러한 투쟁하는 자아로서 요청에 관해 한국 교회는 죌레의 신학적 접근이 아닌 성경의 재해석을 통한 접근을 통해 해본다면 어떨까? 나는 이 부분에 관해 예

---

[136] Sőlle, 19.

[137] Sőlle, 21-22.

[138] 전능환상은 위니캇의 대상관계이론에서 나온 말로 유아와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어머니는 유아에게 충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에 관해 유아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전능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이러한 유아의 세계를 지지해 주면 아이는 창조적인 아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전능환상에 젖는다면 꺼꾸로 유아적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의 행위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예수가 희생자 메커니즘의 희생자로 나설 때 적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 한 제자의 투쟁이 있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막아 선 것이다. 칼을 휘두르며 저항을 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제자의 투쟁에 대해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만 인용하지만 이것은 투쟁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 방법에 관한 예수의 발언이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투쟁으로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넘쳐난다. 단지 나를 포함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성향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예수는 마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예수처럼 말씀을 인용하고, 잘못된 말씀의 인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마귀에 대해 투쟁하고 쫓아내도록 이끌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139] 마귀의 실체는 르네 지라드가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자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는 인간이며, 집단이며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 되는 악의 대물림이다. 자아의 죽음이 공적, 정치적 의미에서 악을 저항하는 힘을 배제하고 있다면, 나는 자아의 죽음에서 만족시키지 못한 공적, 정치적 의미에서 악을 저항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오늘 한국 교회에 요청된다고 본다.

---

[139]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을 참고.

Chapter Ⅴ

목회적 실천: 대안적 십자가 신학을 위한 성경공부

(Pastoral Practice: The Bible Study for Balance of the Cross Theology)

나는 먼저 왜 목회적 실천에 있어서 설교의 형식이 아닌 성경공부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설교라는 것은 회중의 상황성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성서무오설을 지지하는 회중에서부터 현대 신학적 논쟁을 이해하는 회중들까지 다양하다고 하는 상황성을 고려하면 대안적 십자가 신학을 공적설교 현장에서 행한다는 것은 수많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나는 성경공부를 선택했다. 성경공부라는 것은 선별성을 지닐 수 있다. 본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다루었던 십자가 신학을 이해해야 하고, 적어도 그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대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설교는 통상적으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시간사용의 효율을 위해 질의 응답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로 연역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 점이 성경공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대안적 십자가 신학을 기반으로 한 성경공부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함께 실험적 사유 안으로 이끌어주며, 고민하게 하며, 새로운 통찰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관해 비판적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전통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비 콕스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믿음(Belief)에서 신앙(Faith)로 전환이 요청된다. 이것은 방법론의 변화를 요청한다. 자명

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진리에 이른다는 식의 변증법적이고, 연역적인 방법론이 아닌 철저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귀납법적 방법론이다. 상황성에 응답하게 위해서 설교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변화가 요청된다. 둘째는 십자가의 의미에 있어서 전통성에 대한 해체와 전통에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전통들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십자가의 순응적 측면과 저항적 측면을 살펴봐서 오늘 날 희생자를 만드는 희생자 메커니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악을 저항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보았다.

A. 제목: 악을 저항하는 십자가 (Title: The Cross against The Evil)

악을 저항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 중에 지금까지 그 의미를 많이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희생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폭로함으로 개인윤리를 넘어서서 악의 공적,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며, 이에 따라 약자를 희생시킴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저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 상황: 희생자 메커니즘 (Context: The Sacrifice-Mechanism)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성경공부의 목적은 희생자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이러한 희생자 메커니즘에 대해 성서의 전통을 확인하면서 희생자 메커니즘을 저항하는 신앙 의식을 키우기 위한 설정이다.

1. 질문들 (the Questions)

a. 최근에 당신이 본 기사들 중에 "희생자"와 관련하여 본 것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교회 안에서 "희생자"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가

족들 중에 누군가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희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 “희생자”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주변에 드러난 희생자를 찾아보는 것이다. 실제 기사를 통해,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학교, 직장 혹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문을 펴보면 수많은 희생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온다. 살인, 아동학대, 테러로 인한 죽음, 또는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이 죽는 희생 등이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주방봉사를 하는 정해진 몇 몇 여성들, 가족을 위해 늘 희생하는 어머니 등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b. 당신이 본 또는 경험한 “희생자”에 관해 정리해서 말해 보시오.

자신이 관찰한 희생자에 관해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든다면 “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통해 304명이 희생된 것을 방송을 통해 보았다”라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 당신은 이러한 “희생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나눌 수 있도록 고안이 된 질문이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 희생된 304명은 자본주의의 희생물이었다.” 혹은 “그들은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 나태에 대한 희생제물이었다”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성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자가 파악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다.

2. 성서 안에서 희생 이야기들 (The Story of a Sacrifice in the Bible)

여기에서는 성서 안에서 희생에 관련된 담론들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성서 안에서 나타난 희생에 관한 담론들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이다.

a. 요셉의 희생 (창세기 37:18-28)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결국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 형제 중 하나(유다)의 제안으로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인신매매로 넘긴다. 집단 안에서 시기심이 희생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다. 본문을 제시하고 읽고, 자기들이 해석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본다. 그리고 희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성경 인도자가 제시한다.

b. 어떤 레위인의 첩의 희생 (사사기 19:1-30)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한다. 그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가서 4개월을 머문다. 레위인 남편은 설득하여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장인어르신 집에 5일을 머무른다. 부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불량배들에게 강압에 레위인 남편은 부인을 희생물로 그들에게 준다. 그리고 부인은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다. 이 레위인은 부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다. 이 사연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 불량배들의 생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큰 내전이 일어난다. 왜 예루살렘 집단은 가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레위인 남편은 부인을 희생물로 내 놓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표면적으로 볼 때 희생자 메커니즘은 조직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희생자로 넘

겨버리는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희생자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러한 레위인의 악의 형태는 조직적으로 일어난 불량배들과 그를 감싸는 예루살렘 집단의 불의에 비해 작게 여겨진다.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부인의 불륜이 이러한 비극을 낳았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다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누구나 이러한 폭력에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희생자 이면에 가장 큰 희생자 메커니즘은 가부장제와 인간을 대상화하는 폭력과 관련이 있으며, 집단이 가해자의 편에서 보호자로 자청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c. 다말의 희생 (사무엘하 13:1-19)

다윗의 왕자들 중에 암논이라는 청년이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난 희생을 보여준다. 암논이라는 청년은 결국 아프다는 핑계로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유인하여서 강간을 한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미운 감정으로 바뀌어서 다말을 쫓아낸다. 이 사실을 친 오빠인 압살롬은 잠잠히 있으라고 하면서 결국 암논을 살해함으로 복수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행해지는 강간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계속 일어나는 폭력이다. 이 희생 메커니즘은 역시 가부장제적 사회라는 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성평등적 시선과 비폭력적 대화와 사회 제도적으로 여성의 성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가 되는지, 어떻게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지 폭력의 순환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다.

d.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과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의 희생 (사무엘상 22:17-22)

다윗이 사울의 정치적 압력을 피해 도망갈 때 성전을 들렸다. 그 곳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취한다.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성

전의 제사장들과 부녀자들을 살해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이 세상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주변부에 있는 정치세력들을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희생물이 되도록 요구한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저항을 군사력으로 막았으며, 약 200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만들었으며, 4300명의 사상자을 만들어 내었다.[140]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다양한 양태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e. 세례 요한의 희생 (마태복음 14:1-12, 마가복음 6:14-29, 누가복음 9:7-9)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내용으로 세례 요한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의 도덕적 흠을 비판한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고 결국 목 베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희생은 오늘 날 자행되는 수많은 양심수들과 정치범들을 떠오르게 된다. 현재 한국에는 50명 정도의 양심수가 있다고 한다.[141]

3. 십자가를 통한 폭로 (Disclosure through the Cross)

a. 마가복음 14:43-15:34을 읽고 예수의 희생 사건을 요약해 써보라.

다음은 요약에 관한 한 예이다. “보도에 따르면 산헤드린의 종교지도자들이 수배한 예수를 예수의 측근이었던 가롯 유다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 잡혔다. 거짓증언들

---

[140] Wikipedia(위키피디아 한글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https://ko.wikipedia.org/wiki/5%C2%B718_%EA%B4%91%EC%A3%BC_%EB%AF%BC%EC%A3%BC%ED%99%94_%EC%9A%B4%EB%8F%99 (Accessed December 20, 2015).

[141] 강한, “양심수 50명 ”정권 마음에 들지 않아 구속”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November 12, 201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3 (Accessed May 9, 2016).

이 난무한 법정에 섰으며, 신성모독죄로 로마법에 있지도 않은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내려 달라고 빌라도 법정에 요구한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린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 형을 통해 처형당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이유는 성경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예수의 희생 사건을 정리하면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유리해지고, 그 희생을 계속 기억한다는 것은 저항의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이 된다.

b. 예수를 희생자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보라.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는 죄 사함을 위해, 또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보편적인 십자가의 개념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과 경청을 유지한다. 그리고 몇 가지 예수를 희생자로 만들었던 상황을 묘사해 본다. (1) 예수의 비판에 분노했던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 (2) 예수의 희생을 통해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빌라도 총독, (3) 예수를 직접 못박은 사람들과 협조한 사람들이 남성이라는 점, (4) 예수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화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이들의 요구 등.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예수가 희생당함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성경의 내용상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의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예수 중심의 세력화를 막음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었을 것이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유대 지도층의 동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희생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그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개인 또는 정치적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c. 당신은 예수의 희생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의 희생을 통해 나도 예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든지 “예수의 희생을 통해 감사와 은혜를 받았다”는 식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모두 가능한 대답이다. 그러나 예수의 희생을 통해 폭로되는 것들을 꼭 짚어준다. 예를 들면 예수를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다.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 빌라도 총독, 그리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면서 단지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로마군병들이다. 이런 모습들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과 연결되고 있다. 예수의 희생 주변에 수많은 희생에 동참하는 희생자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예수의 희생이다. 예수의 희생은 더 이상 희생자 메커니즘을 통해 예수와 같은 희생을 만들어 내지 말자는 것이다.

C. 붙잡아야 할 십자가와 저항 (The Cross to take and Resistance)

1. 당신이 생각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한 십자가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 복음이며,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는 길이 열리며,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도바울이 말했듯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는 다는 것은 나의 죄가 죽는 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간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다.

2. 당신이 생각한 십자가의 복음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것에 더하여 십자가를 통해 폭로되는 희생자 메커니즘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희생자를 만드는 메커니즘 안에 살면서 내 주변의 이웃

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희생자 메커니즘을 깨기 위해서 저항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하는 자아”에 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는 의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개념이라면, 타자에 대한 윤리 즉 어떻게 이 세상의 악과 정치적인 악에 관해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희생자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그 것이 함의하는 악마적 요소를 향해 예수와 같이 저항하는 자아에 관한 도전이 필요하다. 정치 사회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살펴봐야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은 곧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희생을 방치하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 이러한 악마적 구조를 저항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서 악을 향해 저항한 십자가의 예수가 가진 “저항하는 자아”를 길러줘야 한다.

3.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가 희생물로 잡혀가려고 할 때 어떤 저항을 했으며, 예수는 어떻게 말해 주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사 복음서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의 반응들을 묵상하고 희생자 메커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인지를 사유해 보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본문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도록 한다.

a. 마태복음 26:47-56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휘둘렀다. 결국 대제자상의 종이 귀가 절단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 책망했다. 예수는 순순히 잡혀가기로 마음을 정했고, 이를 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는 저항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말했다. 희생자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에 관해 이 본문을 근거로 평화적 시위를 기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 마가복음 14:43-50

이 본문 역시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에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러 그의 귀를 절단했다. 예수는 그 무명의 제자에게 아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나를 강도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고 조롱한다. 마가복음은 오히려 희생자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폭력적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본문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히틀러 암살계획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다. 그의 말 중에 "미친 운전사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42] 그 의미를 생각해 볼만 하다.

c. 누가복음 22:47-53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무명의 제자는 역시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절단한다. 예수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는 그 귀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다. 희생자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저항 방법에 있어서 과격해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

[142] 김상수, "미친 운전사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프레시안*, October 13, 20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9471 (Accessed May 9, 2016).

서는 예수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

d. 요한복음 18:3-12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실과 그의 기를 잘라낸 예수의 무명 제자가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다. 저항하는 베드로에 대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하시면서 베드로는 책망한다. 베드로의 저항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의 영적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했다. 예수를 잡으로 온 무리 역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모든 예수의 희생에 관련된 것은 영적인 무지이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을 강조한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갈등은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희생자 메커니즘을 만드는 사람들도 "무지"하고, 이 문제를 놓고 저항하는 베드로도 "무지"하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많은 전통 교회가 늘 유지해 오던 "저항"에 대한 하나의 이해이며, 희생자 메커니즘을 향해 내 놓은 해석적 근거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나의 전통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전통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4.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이, 혹은 당신의 이웃이 희생 메커니즘 속에 희생을 맞이하였거나, 희생을 당하려고 할 때 당신의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 메커니즘 속에 희생을 맞이하는 이웃들이 있다. 먼저 그들을 위해 애도해야 할 것이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폭로된 희생 메커니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고,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약자를 돌보거나 염두하지 않는 정치적 구조, 늘 부자의 편에 서는 정치적 세력들, 자신의 편리를 위해 희생자를 만들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희생자를 만드는 구조는 결국 예수를 다시 못박는 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비폭력 저항을 기획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런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릴 수도 있다.

D. 결론: 악을 저항하는 십자가를 붙잡는 예수 제자 되기 (Conclusion: Being Jesus' Follower who take the Cross to resist the Evil)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선물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 또한 너무나 큰 축복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탐심과 이기심이 죽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으로 산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개인적인 윤리차원에서 머무는 것에 관해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곧 타자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고통의 소리에 공감하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책임과 관련이 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희생자 메커니즘을 통해 희생된 희생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나를 포함한 당신의 가까운 어머니, 자녀, 가족들의 목소리일수 있다. 또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수 도 있다.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은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 희생자가 나타날 때 그 주변으로 숨겨진 폭력의 의미와 폭력의 주체를 파악하는 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폭력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개념을 너무나 개인화 하였다. 예수를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세상의 악을 인식하게

될 때 희생자 메커니즘은 악마의 실체인 것이 폭로된다. 그 때 우리는 단순히 자아의 죽음, 또는 개인구원이라는 복음의 의미가 넘어서야 함을 알게 된다. 참 생명과 사회의 악에서부터 희생 위기에 있는 약자들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개인을 넘어서 공적인, 정치적인 영역까지 구원되기 위해 이기적인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서 악을 향해 저항하는 십자가를 소유한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 끝.

Chapter Ⅵ

결론 (Conclusion)

A. 요약 (Summary)

나는 한국교회 십자가 이해에 관해 비판적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십자가 이해를 알기 위해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행해진 설교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하면서 복음주의적 성향의 교회에서 행해진 설교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행해진 설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결과 복음주의적 성향의 교회든, 진보적 성향의 교회이든 십자가의 이해에 있어서 르네 지라드가 말하는 희생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문에 결국 목회를 위로의 차원에서만 이해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만 이해함으로 오히려 희생자들의 희생을 정당화 한다는 오해까지 가지게 되었다. 많은 한국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개인 구원의 측면, 신정론을 통한 위로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좀더 심층적인 차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거리 시위를 적극 주도했던 향린 교회의 거리행진과 그에 맞춰 나온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시국선언문은 십자가의 "폭로"로서의 기능과 저항의 의미들을 잘 나타내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와 관련된 폭력의 다양한 구조와 특히 "희생자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개인윤리로서 자아의 죽음을 넘어서서, 공적 그리고 정치적 해방을 위한 예수의 저항하는 자아를 소유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인간과 인간사이에서의

용서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 가해자의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저항할 수 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신학적 성찰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열매이다.

B.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 (Conclusion of A Critical Study)

본 연구에서 나는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에 있어서 너무나 감상적이고, 전도 지향적이며, 위로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적 의미에서 희생자 편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정당화 하거나 은폐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목회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관해 전통적인 신학적 이해를 넘어서 신학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해석된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 안에 발견되는 희생자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저항하며, 십자가를 통해 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고, 또한 희생자 메커니즘에 의해 힘없이 희생자가 된 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발견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인간의 타락에서 돌아섬을 이끌어주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

C. 제언 (Recommendation)

나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십자가 이해가 희생자 메커니즘 안에 드러나는 공적, 정치적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희생자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의미들을 드러내어 저항하는 일에 연대할 만큼 역량이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것은 곧 한국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와 영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나는 본 논문에서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다룬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

했다.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자 예수가 "남성"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게 관해 크리스타(Christa)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희생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사진을 보았다.[143] 왜 이런 종교적 상징물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오늘 날 현실 속에 경험은 남성 희생보다 여성 희생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여성의 경험 속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폐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일에는 가부장제적 힘의 남용이 있다.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성폄하와 교회 안에서 여성은 부엌에서 일하고 남성들은 교회 안에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대부분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현상은 오래된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희생"으로 주장하면서 여성들에게 "희생"의 짐을 지우는 설교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독교 여성들은 이미 희생자의 위치에서 어떤 희생 메커니즘이 그녀들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가부장제적 구조를 유지, 보존하는 일에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동조하고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가부장적 구조에 희생물로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연구자는 최근 목회를 하면서 여선교회가 담당으로 하던 부엌 일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식당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이며 양성평등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서 주장했던 모토가 "희생자를 만드는 구조"를 교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자가 본 연구 논문을 진행하는 중에 얻은 것이었다. 르네 지라드는 남성 인류학자라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다른 신화들, 즉 폭력을 은폐하는 신화들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의 남성성

[143] Edwina Sandys, "Christa"(1975) *Edwina Sandys website*, http://www.edwinasandys.com/Christa (Accessed May 9, 2016).

이 가져다 준 은폐되어 있는 패미니스트의 인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폭로한 폭력과 폭로한 폭력 속에 은폐된 성차별이라는 폭력은 더욱 은폐되어버린 아이러니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좀 더 드러내지 못한 패미니스트 십자가 이해를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또 하나를 첨부한다면 한국교회의 십자기 신학 이해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활의 의미를 심도깊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가 희생자 메커니즘의 폭로에 그 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 희생자 메커니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계 안에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도로테죌레는 “부활: 믿음의 신비”(Resurrection: Mystery of Faith)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한 조 마비(Joe Mavi)에 대해 소개한다.[144] 조 마비는 1982년 6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까지 감금생활과 고문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저항정신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수많은 조 마비가 탄생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정의를 향한 정신은 영원했다. 도로네죌레의 부활에 대한 이해는 부활에 대한 수 많은 이해들 중에 하나의 이해이다. 그 외 가능한 실험적 사유를 통해 교리적인 믿음(orthodoxy)이 있냐 없냐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교리를 근거한 실천(orthopraxy)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사유하면서 “예수 안에서 발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위대한 희망과 예수의 생명력이 함께 연합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 갈 윤리적 실천을 계속 도모해야 할 것이다.[145]

---

[144] Dorothee Sőlle, *Not Just Yes and Amen: Christians with a Caus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83-86.

[145] Sőlle, 86. “In faith in Christ we are united with the great hope and power of life”를 의역함.

참고 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김균진. *현대신학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김보현. *데리다 입문.* 서울: 문예출판사, 2011.

박영식.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손운산.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8.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서울: 미지북스, 2015.

옥한흠. *제자훈련 인도자지침서 1, 2, 3.*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 Ⅰ, Ⅱ.* 서울: KMC, 2006.

이동원. *주께서 친히 아신 사람 모세.* 서울: 나침반, 1999.

이창헌. *십자가의 신비.* 서울: 대장간, 2011.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서울: 미지북스, 2015.

정일권. *십자가의 인류학: 미세시스 이론과 르네 지라르.* 서울: 대장간, 2015.

조석민, 김근주, 권연경, 배덕만, 김동춘, 박득훈, and 김형원.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서울: 대장간, 2014.

조용기.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사차원의 영성.*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차재승. *7인의 십자가 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한국문화신학회 ed. *세월호 이후 신학: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한국여성신학회.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 서울: 동연, 2014.

<번역서>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lem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Translated by 김선욱. 경기: 도서출판 한길사, 2006.

Boersma, Hans.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Translated by 윤성현. 서울: CLC, 2014.

Browning, Don S.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 Translated by 이기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Cone, James H. *God of the Oppressed 눌린자의 하나님.* Translated by 현영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Derrida, Jacques. *Spectres De Marx 마르크스의 유령들.* Translated by 진태원. 서울: 그린비출판사, 2007.

Fairclough, Norman. *Language and Power 언어와 권력.* Translated by 김지홍. 서울: 경진, 2011.

Foucanult, Michel. *Histor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광기의 역사.* Translated by 이규현. 서울: 나남, 2003.

_______. *LES MOTE ET LES CHOSES 말과 사물.* Translated by 이규현. 서울: 민음사, 2012.

Girard, Rene. *Je vois Satan tomber comme leclair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Translated by 김진식.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Gorman, Michael J.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십자가 신학과 영성: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Translated by 박규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Hodgson, Peter C. *A Constructive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구성신학.* Translated by 손원영, 손호현, and 김영선. 서울: 은성, 2000.

Hodgson, Peter C. and Robert H. King ed. *Christian Theology 현대 기독교 조직신학.* Translated by 윤철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James Dunn, *Unity &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Earliest Christianity 신약성서의 다양성과 통일성.* Translated by 김득중 and 이광훈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88.

Kirk, Jerome and Marc L. Miller.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Translated by 엄미란, 김현숙, 오진주, 김동옥, and 이명선. 서울: 군자출판사, 2007.

Küng, Hans. *Die Kirche 교회*. Translated by 정지련. 서울: 한들출판사, 2007.

Mason, Jennifer.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ition) 질적 연구방법론*. Translated by 김두섭. 서울: 나남, 2010.

McGran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역사 속의 신학: 그리스도교 신학개론*. Translated by 김홍기, 이형기, 임승안, and 이양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Moltmann, Jurgen. *Sein name ist gerechtigkeit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Translated by 곽혜원. 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2011.

Moltmann, Jurgen. *예수 그리스도의 길*. Translated by 김균진 and 김명용.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Translated by 이한후. 서울: 문예출판사, 1992.

Russell, Bertrand.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사*. Translated by 서상복. 서울: 을유문화사, 2009.

Schwager, Raymund.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희생양은 필요한가?* Translated by 손희송.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Sőelle, Dorothee. *Das Recht auf ein Anderes Glück 다른 행복의 권리*. Translated by 손규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______. *Es musβ doch Mehr als alles geben 말해진 것 보다 더 많이 말해져야 한다*. Translated by 정미현. 서울: 한들출판사, 2000.

______. Mystik und Widerstand *신비와 저항*. Translated by 정미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Stott, John R. W. *The Living Church 살아 있는 교회*. Translated by 신현기. 서울: IVP, 2009.

Thiselton, Anthony C.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해석의 새로운 지평*. Translated by 최승락. 서울: SFC, 2015.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Ⅲ 조직신학 Ⅲ*. Translated by 유장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5.

Tozer, Aiden Wilson. *The Radical Cross 철저한 십자가*. Translated by 이용복. 서울: 규장, 2011.

<영서>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Kindle Edition.

Fiddes, Paul S. *Past Event and Present Salvation: The Christian Idea of Atonement*. Louisville, Kentucky: Westmisnster / John Knox Press, 1989.

Greene-Mccreight, Kathryn. *Feminist Reconstructions of Christian Doctrine: Narrative Analysis and Apprais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First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3.

Moltmann, Jurgen.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Christ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irst Fortress Press, 1993.

Park, Andrew Sung and Susan L. Nelson ed. *The Other Side of Sin: Wounded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nned-Agains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______. *From Hurt to Healing: A Theology of the Wound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4.

______.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______. *Triune Atonement: Christ's Healing for Sinners, Victims, and the Whole Creation.* Louisville: WJK Press, 2009.

Sőlle, Dorothee and Fulbert Steffensky. *Not Just Yes and Amen: Christians with a Caus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Swinton, John and Harriet Mowat.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CM Press, 2006. Kindle Edition.

<저널>

K. Samuel Lee, "Christian Responsibility for Interreligious Conflict," *Leadership Is Discipleship,* Board of Disciple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7. (In Korean)

<한글 웹사이트>

Anonymous. “국가조찬기도회 전두환 위원장 국운개척사명 기필코 완수.” *동아일보* August 6, 1980: 1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 (Accessed May 9, 2016).

Wikipedia(위키피디아). “감리교신학대학교.”
https://ko.wikipedia.org/wiki/감리교신학대학교 (Accessed May 9, 2016).

______. “5·18 광주 민주화 운동.”
https://ko.wikipedia.org/wiki/5%C2%B718_%EA%B4%91%EC%A3%BC_%EB%AF%BC%EC%A3%BC%ED%99%94_%EC%9A%B4%EB%8F%99 (Accessed December 20, 2015).

______. “유병언.”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B3%91%EC%96%B8 (Accessed Nov. 29, 2015).

______. “포증.”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A6%9D (Accessed October 6, 2015).

강만원.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뉴스M*, June 21, 2014.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7 (Accessed May 9, 2016).

강한. “양심수 50명 ”정권 마음에 들지 않아 구속.”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November 12, 201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3 (Accessed May 9, 2016).

김기석. “눈물을 삼키고 (마가복음 16:14~18).” *청파교회website(담임목사 김기석)*, April 20, 2014.
http://www.chungpa.or.kr/pastorate/preach/template.php?contents=body&code=preach&page=6&number=756&keyfield=&key= (Accessed October 1, 2015).

김상수. “미친 운전사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프레시안*, October 13, 20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9471 (Accessed May 9, 2016).

김승회. “검으나 아름답구나 (아가서 1:5~7).” *선한목자교회website (담임목사 유기성)*, April 27, 2014.
https://vimeo.com/93046436 (Accessed October 10, 2015).

김인중.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7)’ *안산동산교회 website(담임목사 김인중)*, April 20, 2014.
http://www.d21.org/worship/vod_view.aspx?seq=12171&mode=(Accessed October 1, 2015).

______. “책임있는 자녀들로 키우라.” *안산동산교회website(담이목사 김인중)* April 27, 2014. http://www.d21.org/worship/vod_view.aspx?seq=12185&mode= (Accessed May 9, 2016).

김태훈. “내부고발자, 그 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못 믿을 구석’.” *주간경향*, Noember 26, 2013.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11191953421 (Accessed May 9, 2016).

멀티미디어부 기자. “개콘 오프닝, 출연진 전원 세월호 참사 애도 시청자 여러분께 위안이 되길.” *부산일보*, May 27, 2014. http://board.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527000033 (Accessed May 9, 2016).

박종화. “가득찬 영광 (이사야 40:26~31, 베드로전서 1:3~5, 요한복음 21:1~14).” *경동교회website(담임목사 박종화)*, April 27, 2014. http://www.kdchurch.or.kr/html_worship/worship_home.asp?seq=2291&left=0&ws=%C1%D6%C0%CF%BF%B9%B9%E8 (Accessed October 1, 2015).

서유진. “히잡 여고생 졸업앨범 내 이름이 IS라니.” *중앙일보* May 10, 2016. http://news.joins.com/article/20004624 (Accessed May 20, 2016).

성상현. “세월호 슬픔, 월드컵 되면 끝난다구요? 아직 멀었습니다.” *유코리아뉴스* May 21, 2014. http://m.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 (Accessed October 2, 2015).

안창천. “부활을 꿰뚫다(마태복음 28:1-10).” *D3 website*, April 20, 2014. http://d3.or.kr/wp/20140420074115/ (Accessed October 1, 2015).

유병국. “부활의 증인(누가복음 24:13~35).” *선한목자교회website (담임목사 유기성)*, April 20, 2014. https://vimeo.com/92435665 (Accessed October 10, 2015).

이대웅. “이찬수 목사, ‘세월호’ 언급 설교 논란… ‘해명’ 나서.” *크리스천투데이* April 25, 2014.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1771/20140425/%EC%9D%B4%EC%B0%AC%EC%88%98-%EB%AA%A9%EC%82%AC-%EC%84%B8%EC%9B%94%ED%98%B8-%EC%96%B8%EA%B8%89-%EC%84%A4%EA%B5%90-%EB%85%BC%EB%9E%80%E2%80%A6-%ED%95%B4%EB%AA%85-%EB%82%98%EC%84%9C.htm (Accessed May 9, 2016).

이원열. “기독교는 지옥에서의 구원과 질병에서의 치유의 종교이다.” http://usabiblestudy.com/ron_healing/652 (Accessed October 9, 2015).

이재훈. “새누리 한기호, ‘세월호 참사’ 비판 여론에 ‘종북 색깔론’.” *한겨레신문* April 20, 2014.
http://www.hani.co.kr/arti/ISSUE/124/633617.html (Accessed May 9, 2016).

이정훈. “감사하세 십자가.”
https://www.youtube.com/watch?v=buj6WQgYk_Y (Accessed May 9, 2016).

이찬수.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분당우리교회website(담임목사 이찬수)*, April 20,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rghk_t2eHGs (Accessed May 9, 2016).

______. “하나님 앞에서 울다(역대하 7:13~14).” *분당우리교회website(담임목사 이찬수)*, April 27,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Aie20bhxziA (Accessed May 9, 2016).

조혜지. “'세월호 추모=종북'이라는 사람들… 무지도 죄다 세월호 추모 무조건 비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란 리본 달 겁니다.” *오마이뉴스* April 16, 20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9582 (Accessed May 9, 2016).

최지용. “세월호 사고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방 묘연.” 오마이뉴스, July 8, 20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579&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Accessed May 9, 2016).

표성중. “‘사회적 책임’과 ‘예배회복’, 교회 미래 결정.” *아이굿뉴스*, September 29, 2011.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34 (Accessed May 10, 2016).

<영문 웹사이트>

Edwina Sandys. “Christa (1975)” *Edwina Sandys website*,
http://www.edwinasandys.com/Christa (Accessed May 9, 2016).

Oren Izenberg. “Experimental Writing, Experimental Thinking” *Program in Poetry and Poetics*, February 26, 2015.
https://poetics.uchicago.edu/experimental-writing-experimental-thinking-lecture-oren-izenberg (Accessed October 6, 2015).

Wikipedia. “Panic.”
https://en.wikipedia.org/wiki/Panic (Accessed May 9, 2016).